

吳永壽의 小說 研究

金永和* · 金炳澤**

目 次

I. 序 論	A. 視點과 거리
II. 作品世界	B. 간결한 文章 · 描寫 · 場面中心 · 匠人精神
A. 初期作品	VI. 韓國的 要素
B. 中期作品	A. 素材 / 說話
C. 後期作品	B. 해학 · 풍자 · 肉談
III. 作中人物	C. 在來의 韓國人
IV. 背景	D. 韓國的 人情
V. 技術의 樣相	VI. 結 論

I. 序 論

吳永壽(1914~1979)는 1935년 스물 두 살 때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에 童詩를 발표한 일이 있다.¹⁾ 그러나 본격적인 문학 활동은 서른 여섯 살 때인 1949년 7월 「남이와 옛장수」가 新天地에서 추천을 받고 이어서 195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머루」가 당선된 후에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1979년 1월 「特質考」가 文學思想에 발표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는 145편 내외의 소설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그는 다음과 같은 作品集을 남겼다.

※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吳永壽年譜, 「新韓國文學全集21」, (語文閣, 1973), p.545.

* 人文大 教授, ** 人文大 助教授

머루(文化堂, 1954)
 갯마을(中央文化社, 1956)
 明暗(白水社, 1958)
 메아리(白水社, 1960)
 睡蓮(正音社, 1965)
 黃昏(創作과 批評社, 1976)
 잃어버린 挑園(栗成社, 1978)
 吳永壽全集1~5(現代書籍, 1968)

吳永壽代表作選集1~7(東林出版社, 1974)

작품의 자세한 年譜는 張師善의 작업이 참조된다.²⁾

吳永壽가 작품 활동을 할 때 그의 작품에 대한 作品評, 창작집에 대한 解說, 그의 文學 전반에 대한 評論 등의 글이 비교적 많이 발표되었다.³⁾

이 글들을 정리하면 吳永壽 小説은 첫째, 人情的 要素가 있고 둘째, 抒情的 분위기가 있으며 셋째, 庶民들의 애환을 묘사했고 넷째, 도시적인 것보다 향촌적인 것이 두드러지며, 다섯째 간결한 문체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社會와 現實에 대해서는 외면 내지 도피했다는 비판도 散見된다.

위에서 살핀 글들이 評論의 性格인데 대해서 趙健相,⁴⁾ 金奉郡,⁵⁾ 張師善⁶⁾의 논문들은 吳永壽

2) 張師善, “吳永壽의 작품세계”, 『韓國現代小說史研究』(民音社, 1984) pp. 431~435.

3) 그 가운데 참고가 되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① 趙演鉉, “抒情의 深化—吳永壽短篇集「갯마을」”(東亞日報, 1956), 이 글은 評論集, 「文學과 그 週邊」(人間社, 1958)에 있음.

② 李御寧, “1956년의 作家狀況”(文學藝術, 1956·12) 및 “1958년의 作家狀況”(知性, 1958 秋季號)

③ 金東里, “溫情과 善意의 世界—吳永壽著「明暗」을 중심으로”(新文藝, 1959·1)

④ 文德守, “抒情의 溫床—吳永壽氏「明暗」에 대하여”(現代文學, 1959·3)

⑤ 千勝俊, “人間의 肯定—吳永壽論”(現代文學, 1959·9)

⑥ 李炳基, “吳永壽”(文學春秋, 1964·11)

⑦ 申東旭, “肯定하는 허로—「메아리」의 경우”(現代文學, 1965·5)

⑧ 千祥炳, “善意의 文學—吳永壽論”『現代韓國文學全集1』(新丘文化社, 1967)

⑨ 廉武雄, “哀歎이 담긴 漁村風景”(現代韓國文學全集1)

⑩ 李御寧, “따뜻한 人情의 世界”(現代韓國文學全集1)

⑪ 千祥炳, “愛憎없는 原始社會”(現代韓國文學全集1)

⑫ 金炳傑, “吳永壽의 兩義性”(現代文學, 1967·9)

⑬ 李和珩, “人間과 肯定의 美學—吳永壽論”(語文論集, 14-15, 高麗大, 1973)

⑭ 洪起三, “吳永壽의 入院記”(現代文學, 1973·6)

⑮ 金素雲, “吳永壽란 小說쟁이”(黃昏, 創作과 批評社, 1976)

⑯ 千二斗, “따뜻한 觀照의 美學”(韓國現代文學全集25, 三省出版社, 1978)

4) 趙健相, “蘭溪·吳永壽論序說—그의 作家精神을 中心으로”(大東文化研究 14輯, 成大, 1981).

5) 金奉郡, “吳永壽論”(韓國現代作家論, 民音社, 1984)

6) 張師善, “吳永壽의 작품세계”(韓國現代小說史研究, 民音社, 1984)

가 死亡한 뒤에 쓰여진 글이고 研究論文으로 발표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吳永壽 文學에 대한 종합적 점검의 성격이 있다.

趙健相의 논문은 오 영수의 작가정신으로 해학, 고향의식, 인간성 회복,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을 지적했고, 金奉郡의 논문은 주제를 화해주의, 현실 풍자, 전통지향의 애정관, 인정과 한, 도원예의 꿈으로 정리하고, 등장인물은 토속적 인간과 소외인간이며, 플롯은 평면적 구성에 의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본요소로 낭만적 배경, 서정적 분위기, 해학, 인정, 설화와 알레고리를 들고 있다. 張師善의 논문은 오 영수 문학에 究明함에 있어서 8·15와 6·25가 가져온 의미를 살피고 그 관련성을 조명하고 있으며, 오 영수의 인간관, 자연관을 밝혀내고 있다. 그리고 오 영수 소설의 구조가 자서전적, 신변잡담적 소재 선택으로 소설적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吳永壽 文學에 대한 평가와 지적을 각도를 달리해서 究明하는 한편 吳永壽 小說에 대한 비교적 세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 영수 소설의 樣相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는 한계와 아쉬움이 있다.

筆者는 吳永壽 小說에 대한 종래의 논평을 비평적으로 수용하면서 30년에 걸친 그의 문학활동을 10년을 단위로 3단계로 나누어 작품세계가 어떻게 변모·확대되어갔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작중인물의 성격과 유형, 배경 설정의 특성, 기술적 측면의 여러 양상을 검토하고 그의 소설에 드러난 한국적 요소를 점검하여 오 영수 소설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그 位相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Ⅱ. 作品世界

오 영수는 1949년 7월 「남이와 옛장수」를 처음으로 발표한 후 1979년 1월 「特質考」를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을 끝냈다. 이 30년 동안에 수필적 성격을 띤 소설까지 합쳐서 145편 내외의 작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잡지에 발표했다가 소설집 또는 全集, 選集 등에 재수록한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잡지에 발표하지 않고 직접 소설집 또는 선집에 발표한 작품도 있다.

오 영수에게는 장편소설이 한 편도 없다. 중편소설이라고 할 만한 작품도 몇 작품 되지 않는다. 단편소설이 주류이고 콩트, 小品의 성격의 작품도 상당수 있다. 그만큼 짧은 형식의 글이 그에게는 체질에 알맞았던 것 같다. 따라서 그의 작품세계가 펍 단조롭고 단순하여 폭이 좁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작품을 통독하고 재음미하면 通說과는 달리 작품세계가 단순하거나 폭이 좁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初期作과 中期作, 그리고 後期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변모의 과정을 거치는 세계도 있다.

오 영수가 남긴 145편의 소설을 좀더 세밀히 살피기 위해 10년을 단위로 작품의 변모과정을 알아 보기로 한다.

初期作品 : 1949년 7월 「남이와 옛장수」——1960년 6월 「後日譚」

中期作品 : 1961년 4월 「은넛골 이야기」——1970년 「골목안 點景」

後期作品：1971년 2월 「맹꽁이」：—— 1979년 1월 「特質考」

A. 初期作品

초기에 해당하는 1949년부터 1960년까지 58편을 발표했다. 비교적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인 시기로 批評家나 文學研究者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작품들이 주로 이 기간에 발표되었다.

머루(50), 화산택이(52), 갯마을(53), 박학도(55), 胎春期(56), 候鳥(58), 明暗(58), 메아리(59) 등 비교적 논의가 많았던 작품들이 많고 창작집도 머루(54), 갯마을(56), 明暗(58), 메아리(60) 등 4권이 나왔다.

A-1) 이 때에 나온 「화산택이」 「갯마을」 「메아리」 등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마디로 시골사람들이다. 村民 또는 鄉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생활 공간이 山村, 농촌, 해촌 등이고 농업이나 어업과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봄이면 산나물이나 뜯고 가을이면 곡식 되나 마련해서 십리밖 경주 가도 S장에 갖다 내는 것이 고작인 화산택이……⁷⁾

덧게덧게 굴딱지 붙은 모 없는 들로 담을 쌓고, 낡은 삿갓 모양 웅기종기 없던 초가가 스무 집 될 까말까? 조그마한 멸치 후리막이 있고, 미역으로 이름이 있으나, 이 마을 사내들은 대부분 철따라 원양 출어에 품팔이를 나간다. 고기잡이 아낙네들은 썰물이면 조개나 해조를 캐고, 밀물이면 채마밭이나 매는 것으로 여느 갯마을이나 별다름 없다.⁸⁾

사흘 동안에 명색만의 움막을 엮어 놓고 동쪽 내외는 밭을 일구었다. 거의 폐담이 되어 버린 밭에 기에 붙을 놓고 탄 자리부터 일구기 시작했다. 별을 보고 깽이를 쥐면 어두워져야 놓았다. 그의 아내 내는 플뿌리를 추리고 꼴을 이었다.⁹⁾

산촌에서 농사를 짓는 노인, 해촌에서 조개나 해조를 캐거나 채마밭에서 일하는 아낙네, 그리고 火田民들의 삶이 제시되고 그들의 生活觀도 드러난다. 開化 또는 近代化와는 거리가 있는, 따라서 意識內容도 前近代的이다.

더구나 될 말이 아닌 것은 연지불이 붙은 것이었다. 여자가 연지불이 붙고 보면 팔자가 사납다는 것을 화산택이는 믿고 있기 때문……¹⁰⁾

이 마을에는 유독 과부가 많은 것이라고나 할까. 고로(古老)들은 과부가 많은 탓을 뒷산이 어떻

7) 「화산택이」 「吳永壽代表作選集1：이하 選集으로 줄인다」(東林出版社, 1974), p.59.

8) 「갯마을」 「選集1」 p.309.

9) 「메아리」 「選集3」 p.72.

10) 「화산택이」 「選集1」 p.61

게 갈라져서 어찌어찌 돼서 그렇다느니, 앞바다 물밭이 거세서 그렇다느니들 했고 또 모두들 그렇게 믿고 있다.¹¹⁾

산신령님요, 우리는 산신령님께 의지하고 사는 백성입니다. 험악한 꼴도 많이 보시고 그래도 노염 안 하시고 우리들도 여게 찰두룩 하시고, 그 은혜 망극합니다. 내년 농사도 재 없이 해주시고 또 이 골짜기에 살던 사람들도 다시 와서 살두룩 산신령님께 빕니다!¹²⁾

여자가 연지불이 붉으면 팔자가 사납다는 것을 믿는다든지, 마을 뒷산이 갈라졌기 때문에 과부가 많다고 믿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前近代的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신령께 제사를 지내는 일은 샤머니즘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계열의 소설에 등장하는 작중인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그리고 그런 일 주변의 잡다한 일에 종사하면서 빈궁 속에 있다는 것, 20세기에 살고 있는 인물들이면서도 개화 또는 근대화의 세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인물들은 한국의 시골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무식하고 가난한 대신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다. 이 인물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의미를 파악할 능력도 없고, 재래의 생활습관과 인습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물들로 현재에 산다기보다 과거에 살며 과거에 대한 동경이 있다. 이를테면 여자의 복장도 ‘곱다랴게 낭자를 하고 쪽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옥양목 버선을 옥색 고무신에 송편처럼 담아 신고’ 있어야 하지, 과마를 하고, 샤쓰를 입고, 몽당치마를 입은 채 밖으로 나다니는 아낙네는 마음이 차지 않는다는 <화산택이>의 생각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더불어 옛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타까와 하고 비애에 젖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李泰俊의 세계와도 비슷한 데가 있다.¹³⁾ 오 영수는 이런 인물들을 제시하고 同情과 아울러 肯定하고 있다.¹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옛 것에 대한 동경,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애를 동정하고 있는 것 - 이것이 오 영수 세계의 한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작가가 시골사람들의 기질, 생활관, 哀歎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그것을 形象化하는 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작가들이 소설을 통해 시골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오 영수만큼 깊이 있게, 그리고 폭 넓게 관찰하고 그것을 리얼하게 묘사한 작가는 드물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고향인 시골 사람들의 삶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과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하는데 능한 그의 匠人的 素質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作中人物들은 경상도지방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11) ‘갯마을」 「選集1」 p.309.

12) ‘메아리」 「選集3」 p.120.

13) 鄭漢淑, 「現代韓國文學史」(高大出版部, 1982) pp.128~134참조.

14) 千勝俊, “人間的 肯定-吳永壽論”(現代文學, 1959·9)

그의 고향이 경상도이고 그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유의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만큼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다.

千哥와 白哥(52), 두 老友(53), 龍淵挿話(54), 어떤 죽음(55), 염초네(56), 떡(56), 不具(57), 여우(57), 落葉(58), 落穗(59) 등의 소설에도 비슷한 세계가 그려져 있다.

A-2) 朴學道(55), 凝血(56), 終車(56), 春寒(57), 제비(57), 합창(59), 恨(60) 등의 소설에는 小市民, 또는 庶民들의 세계가 제시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 개화의 세례를 받아 어느 정도 近代人다운 요소가 있으며, 둘째, 소년 시절이나 청년시절에는 부모의 보호로 별다른 고통 없이 살았으나 현재는 無職 또는 失職하고 있어서 아주 불우한 처지에 있고 셋째, 性格이 소심하거나 현실 적응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식은 자기는 패배자라는 것, 불우하다는 것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恨을 지닌 사람들이다.

「凝血」의 〈명구〉는 전직 교사다. 피난지에서 교원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실직 상태이고 폐결핵을 앓고 있다. 학교가 환도해 가게 될 때 그도 같이 가고 싶었으나 병으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다. 그래서 빈궁과 병고와 절망 속에 있다.

「제비」의 주인공은 상처하고 나서 홀어머니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산다. 생활이 어려워 취직자리를 찾아 출판사를 돌아다녔으나 일자리가 없었다. 빈궁과 절망 속에 있다가 병역기피자로 몰려 끌려가면서도 집에 알리지도 못하는 인물이다.

「합창」의 〈박두현〉은 50대초의 무직자다.

그는 충청도 어느 지주의 아들로서 아무런 과란 없이 자랐다. 껌대에 비해 겁장이었고, 잘 울기 때문에 울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 /R농림학교 재학 중에 두 살 위인 규수에게 장가를 들었고, 학교를 나와서도 별 하는 일 없이, 그러나 아무런 군색도 모르고 삼십을 넘겼다.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유산을 물려받자, 따분하던 시골 살림을 견어 서울로 옮겼다. 서울서도 별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해마다의 수곡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친구의 껌에 빠져 광산에 손을 댔다가 망해 버렸다. [중략] 6·25 때는 부산서 모 사립 중학교에 생물 강사로 다니면서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했다. 좀 멀어지기는 했으나 같은 고향으로서 역시 동란 통해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그 때 그의 나이 마흔 다섯, 그의 아내는 서른 둘이었다. /환도를 하자 학교도 차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와 함께 강사 자리도 후진들에게 밀리고 말았다. /살 길이 막연했다.¹⁵⁾

이 인용문 속에 〈박두현〉의 삶이 요약되어 있다. 이런 삶은 부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경제적 고통 없이 성장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불우해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삶은 「박학도」, 「春寒」, 「終車」, 「恨」의 주인공들에게도 적용된다.

〈학도〉는 현재 불우하지만 소년 시절에는 부농의 아들로 경제적 고통을 모르고 자랐으며, 「중차」의 〈삼촌〉은 부농의 아들로 중학생 때부터 기생방을 출입하는 등 향락과 낭비의 생활을 계속하다가 늙어서 불우하게 되었다. 「춘한」의 〈추강 선생〉도 부농의 아들로 일본에서 대학을 다닌

15) 「합창」 「選集3」 pp. 196~197.

경험을 가졌고 젊었을 때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민족 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입 후보했다가 떨어진 후 불우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인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패배감이고 한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나도 남의 집 종손으로 태어나서 부모덕에 글줄도 배웠고, 또 적지 아니 세업도 났다고——근데, 어제가 바로 설달 그믐 날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처지라 망명에 찬 물 한 그릇 떠놓지 못하고 보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나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게 글씨 남의 집 자손된 도리겠냐고, 그 래 이것저것 생각하니 어떻게 울화가 치밀고 상심이 되던지……그래서 그만 화집에 뒀한다는 격으로 C형을 끌고 가서 대포를 들이킨 것이 그만……¹⁶⁾

「恨」의 주인공 詩人 의 술회 내용이다. 50이 가까운 독신, 정월 초하루가 되어도 조상을 위해 제사조차 지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의 심경이 드러난다.

「응혈」, 「제비」 등에 나오는 인물들은 빈궁과 병고 속에 있는 소시민이고, 「춘한」과 「恨」의 주인공은 한을 지니고 살고 있는 소시민이라면 「합창」 「종차」 「박학도」의 주인공은 보호자의 상실과 더불어 몰락을 거듭하다 불우하게 된 사람들이다.

오 영수는 이런 인물들을 제시해 놓고 동정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박학도」 「종차」 「합창」의 주인공은 배짱이적 요소가 없지 않다. 그 점에서 게으름과 무기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까지 오 영수는 동정하고 있다. 사랑과 화해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투영된 것이다.

A-3) 윤이와 소(52), 아찌야(52), 노파와 소년과 닭(52), 코스모스와 소년(52), 누나별(54), 胎春期(56), 옥이 생일날(56), 옥이란 아이(56), 候鳥(58), Y소년의 경우(59) 등의 소설에서는 어린이나 소년·소녀가 등장한다. 어린이나 소년·소녀들을 통해서 인간본성이 어떤가를 점검하고 있다.

인간을 善惡으로 나눈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다. 그러나 크게 인간을 선한 것으로 보느냐, 악한 것으로 보느냐고 할 때 오 영수는 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그의 소설에는 惡役이 드물다. 극히 일부의 인물을 제외하면 착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오 영수가 인간을 착하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착한 속성을 어린이를 통해 살핀 소설에 「옥이 생일날」이 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옥이는 일곱 살 전후의 어린이이다. 6·25 직후 어려운 생활에 시달릴 때 이 어린이는 엄마가 밥을 푸기도 전에 부엌으로 가 투정을 하다 어머니에게 쥐어박히기도 하고 누이 동생을 괴롭히거나 이웃 아이들과 싸움을 하여 부모를 괴롭힌다. 손님에게 대접할 것을 먹여 버리는 등 부모로서는 괴로운 일이 되풀이 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그를 위해 생일상을 마련했을 때 그는 혼자서 먹으려 들지 않는다. 형제들이 함께 먹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동생에게 먹을 것을 골라 주기도 한다.

16) 「恨」 「選集3」 p.293.

이런 욕이를 미소를 띠우면서 바라보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에게 저기 보라는 듯이 눈짓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어리었다. [중략] “아이들이란 다 저런 거야, 넌 걸핏하면 거지 혼신이니, 걸켜니 하고 쥐어박지만, 거지가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¹⁷⁾

어린이는 선량한 것이라는 이 소설의 아버지의 생각은 그대로 오 영수의 생각이기도 하다. 어린이는 걸귀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형제끼리 먹을 것을 놓고 다툰 때도 있지만 본성은 선량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原型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를 관찰하면서 인간성을 추출해내고 있다.

「아찌야」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어린이를 관찰하고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 드러난다.

이 소설에서는 다섯 살 된 어린이와 육군병원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한 병사가 등장한다. 이들 사이는 인간 관계의 초보적 단계인 혈연이나 지연이 없는 낯선 관계다. 그러나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와 그 앞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는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가까워진다.

인간은 전혀 낯선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주 접촉하는 사이에 정이 생기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병사가 전선으로 가게 되자 둘은 헤어지게 된다. 그 때 그들 둘 모두 눈물을 흘린다. 다섯 살 된 어린이와 20대의 군인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무엇일까. 인간은 접촉하는 사이에 정이 생기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의 親和力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세속적 이해 관계에 젖기 이전의 어린이를 통해서 인간이 지닌 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 영수의 人間觀의 한 측면이다. 세속적 이해에 물들지 않은 어린이들, 그들은 인간의 원형이요, 또 原初形態에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에 유의하면 인간이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소설에도 나타난다.

장마뒤였다. 앞 개울에서 물장난을 하다 고무신 한짝을 잃어 버렸다. 그 때 쇠스랑으로 거름을 퍼 내던 아버지는 저놈 밥도 먹이지 말고 당장 쫓아내라고 고함을 쳤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수수비물 거꾸로 쥐고 뛰어 나왔다. 웅아는 엉겁결에 선이 치마밑으로 파고 들었다. 선이가 앞을 막고 뒤를 가리고 해서 간신히 피했지만 그 바람에 선이만 호되게 두 찰이나 얻어 맞았다.¹⁸⁾

이 소설에 나오는 <웅아>와 <선이>는 남남이었다. <선이>가 <웅아>의 집에 와서 사는 가운데 정이 솟아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찌야」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인간은 접촉하는 가운데 정이 솟아나는 것과 함께 자기에게 정을 주는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속성도 있음을 아울러 제시한다.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작품에 「누나별」이 있다.

17) '욕이 생일날' 「選集2」 pp.132~133.

18) '胎春期' 「選集7」 p.266.

들일에 바쁜 아버지, 어머니보다 무명길쌈 매만지기에 여념이 없는 그의 할머니보다도 소년은 그의 누야를 따랐다. 이젠 소년의 기억에는 없는 일이지만 소년이 언젠가 감기를 앓았을 때 코가 막혔다고 해서 입으로 코를 빨아낸 것도 그의 누야였다. [중략] 소년은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사학년이 된 요즘까지도 돈 많이 벌어서 누야 준다고 했고, 누야 하고 산다고 했다.¹⁹⁾

합리성보다 자기편이 되어 감싸주고 정을 쏟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어린이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것이 어린이의 속성——나아가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 작가의 생각인 듯 싶다.

이런 세계는 어른이 등장한 소설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점에 유의하면 그는 한국인의 특성을 작품화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보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A-4) 머루(50), 대장간 두철이(50), 두 피난민(51), 霜春(51), 雪夜(51), 東部戰線=從軍記(55), 내일의 삽화(58), 後日譚(60) 등은 分斷狀況과 관계가 있는 작품들이다.

「머루」, 「대장간 두철이」, 「후일담」은 6·25가 일어나기 직전인 40년대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빨치산이 준동하던 시대에 빨치산과 경찰들 사이에 끼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주류를 이룬다. 「머루」와 「대장간 두철이」는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알아차릴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고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느날 갑자기 빨치산이 나타나 협력을 강요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일인지도 모른채 그들의 삶이 파멸하고 있다. 「후일담」은 국민학교 교사 부부가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 끼어 희생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소설이다.

여인의 남편은 착실한 국민 학교 교사였다.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난 어느 날 한밤중이었다. /잠을 깨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총구멍이 가슴을 노리고 있었다. 꺾꽂 말라고 했다. 꺾꽂 할 때도 몸뚱어리가 굳어지고 허가 오그라 들었다. 옆에 누운 남편도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 /식량을 뒹고 옷가지들 견어 썼다. 모두 세 사람이었다. /만일 경찰에 고자질이라도 하는 날에는 물죽음을 당할 테니 그리 말라고 했다. /세 사람이 나가고 얼마 안 있어 총소리가 연달아 여러 번 들렸다.²⁰⁾

평화롭게 사는 가정에 어느날 갑자기 빨치산이 나타나 총부리를 대고 식량과 옷을 빼앗아 간다. 경찰에 고발하면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위협을 남기면서 떠났다.

이런 경우 교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치안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던 혼란기에 빼앗으면 뺏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그 당시로서는 화근이 된다.

다음 날 내외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부역죄라고 했다. 빨치산의 앞잡이라고도 했다. 누구누구더

19) '누나별' 「選集2」 pp. 87~89.

20) '後日譚' 「選集3」 p. 321.

냐고 이름을 대라고 했다. 그 동안 몇 번이나 보급을 대 주었으며 이번에는 무슨 연락이 있었느냐——바로 대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다. 당한 대로만 말을 했다. 도시 엉뚱한 모를 일들이었다. 그래서 모진 배를 맞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고문을 당하다고 이십 일만에 풀려 나왔으나 남편의 소식은 알 수 없었다.²¹⁾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 끼어 양쪽으로부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제시된다.

이 소설은 플롯이 진행되면서 남편은 행방을 알 수 없고 아내는 6·25가 일어나자 다시 체포되어 바다에 水葬된다. 혼란기에 정당한 司法的 節次를 거치지 않고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화한 것이다.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분단 상황이 가져온 비극의 의미를 묻고 있다.

「머루」와 「대장간 두철이」가 빨치산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면 「후일담」은 빨치산과 경찰에 의해 양쪽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두 피난민」, 「상춘」, 「설야」, 「동부전선」, 「내일의 삽화」 등은 6·25 전쟁으로 서민층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파멸되고 있는가를 형상화한 소설들이다.

이 소설들에 나오는 인물들은 첫째, 近代社會에 살면서도 近代의인 것의 세례를 받지 못해 아는 것이 적고 둘째, 知的 思惟能力이 부족하여 현실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셋째, 가난하지만 선량하고 소박하다. 빈궁과 무지 속에 살고 있는 庶民들이다. 이런 서민들의 파멸하는 삶과 6·25와의 관련을 살폈다는 것은 이 작가가 分斷狀況이라는 현실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분단 상황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사유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품이 가지는 감동의 폭이 좁은 것이 아쉽다.²²⁾

B. 中期作品

중기에 해당하는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이 작가는 37편을 발표했다. 초기에 비해 비교적 작품의 편수가 적다. 이렇게 된 것은 66년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기간에 발표된 작품 중 중요한 소설은 은넷골 이야기(61), 睡蓮(61), 소쩍새(62), 안나의 遺書(63), 피(65), 五道영감(66), 秋風嶺(67) 등이 있고 작품집에 睡蓮(65)과 吳永壽全集 5卷을 내었다.

B-1) 「은넷골 이야기」, 「소쩍새」, 「고개」, 「섬에서 온 식모」, 「鳴寸 할아버지」 등에는 남의 집 하인, 식모, 소작인의 딸, 庶子 등 제대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그려져 있다.

「은넷골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깊은 산골로 피해 가

21) 같은 작품, pp. 321~322.

22) 좀더 자세한 것은 金永和의 “分斷狀況과 文學”(論文集 23, 濟州大, 1986) 참조.

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은넷골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다. /개울가를 밭가 손바닥만큼씩한 논배미를 일구고 산 비탈과 골짜기를 뒤져 잡곡을 심은 외에 철따라 산나물을 뜯고 약초를 캔다. /바깥 세상과 굳이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일년에 한 번, 당귀나 천궁같은 약재를 역촌장에 내다가 뱃자치나 아니면 농사 연모, 소금들과 바뀌오는 것 뿐이다.²³⁾

농부라고도 할 수 없고, 화전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고립되고 특이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시된다.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이곳으로 피해 왔다. <양노인>은 김해 근방에 살다가 한일합방이 되자 이 곳에 들어온 한문 훈장이었고, <김가>는 남의 집 머슴으로 있다가 주인네 조카 딸과 눈이 맞아 아이를 배게 되자 쫓겨난 인물이며, <박가>는 노름하는 형을 해치고 들어온 사람이다. 또 <문둥이 부부>들도 쫓겨나듯 산골로 피해 온 사람이다.

사정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산골에서 인간의 극한상황의 경지에 몰려 인간의 삶과 인간의 본성 등을 드러려 보여준다.

첫째는 굶주림이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곤경에 빠진다. 임신한 아내를 남겨 두고 <김가>는 먹을 것을 구하러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를 낳고 미쳐버린 아내를 발견한다.

마당에 들어서자 짐을 동행이 치고 부엌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김가는 그만 옥! 하고 한걸음 물러섰다. 등골이 오싹했다. /부엌에서 막 불을 지피다 말고 부엌문을 막아서는 덕이가 이전 사람의 꼴이 아니었다. /흐트러져 수세미가 된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푸르딩딩하니 부었고, 입술은 바래인 파래빛이었다. /김가를 바라보는 회분한 윤기없는 눈은 깜짝일 줄 몰랐다. 김가는 보다 못해 /“내다, 내가 왔다.” /그러나 덕이는 엉뚱하게도 /“없다, 목을 거 없다!” /김가는 이제 배가 고파서 눈발이 뒤집힌 게라고 —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 번 두드리면서 /“내다, 날 모르겠나?” /그래도 덕이는 /“아무것도 없다, 목을 기 머 있어!” /그리고는 손을 저었다. /김가는 이제 정말로 환장이 됐구나 — 그러면서 막아선 덕이를 떠밀고 부엌으로 들어서자 덕이는 그만 김가의 팔목에다 이빨을 세웠다. /김가는, 이제 왜 이 지랄이야 — 하고 팔을 뿌리치자 덕이는 비틀하고 쓰러졌다. /김가는 피가 돌는 이빨자국을 누르면서 솔두경을 들어 봤다. 토끼가 했다. 물까마귀 같기도 했다. [중략] 그것은 아이였다. 분명 갓난 아이였다. /김가는 눈앞이 아찔했다. 손에서 솔두경이 떨어졌다. 덕이를 돌아다 봤다. 삭정이 속에 처박힌 덕이는 히이 잇발을 내보이면서 뭐라고 혼자 중얼대고 있었다.²⁴⁾

굶주림의 극한에 달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한 예를 이 소설에서 본다. 굶주림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동물적 욕구인 식욕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자기의 자식마저 삶아 먹게 되는 상황을 본다.

23) '은넷골 이야기' 「選集4」 p.16.

24) 같은 작품, 「選集4」 pp.37~38.

이 소설은 극한 상황 속의 인간을 제시하여 人間의 의미를 묻고 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남녀 관계, 전통적인 윤리와도 거리가 있는 삶을 산다. 같은 여자를 두 남자가 함께 소유하기도 하고 子孫을 얻기 위해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인물도 나온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反人間的, 反倫理的인 요소가 있지만 吳永壽는 이런 인물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여기서도 이 작가의 인간에 대한 긍정의 자세가 엿보인다.

「소쩍새」는 남의 집 머슴과 종의 이야기다. 호적에도 올라 있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다.

〈돌이엄마〉(순이)는 일곱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주인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것이 주인 마님에게 들켜 인두로 지지는 고통을 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난다.

어머니와 떨어져 그 집에서 종으로 계속 일하다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머슴인 〈용식〉이와 결혼한다. 6·25가 일어나 주인 아들이 군대에 나가게 되자 남편(용식)은 주인 대신 입대한다. 〈순이〉와 마찬가지로 호적에 올라 있지 않은 〈용식〉은 징병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군대에 대신 갔다 오면 논 두 마지기과 밭을 준다는 꼬임에 대신 입대한다. 그러나 군대에 간 〈용식〉은 전사했고, 약속한 토지를 아내인 〈순이〉는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남편의 무덤에 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주인 아들이 전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순이〉가 아내 행세를 하면 거짓이 탄로되기 때문에 주인의 감시가 심했다.

주인에게 겁탈당한 여인과 그의 딸의 숙명적 비극을 무리없이 조명한 작품이 「소쩍새」이다.

이 소설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초기소설에 나오는 村民들보다 더 社會經濟的 지위가 낮고 개화의 세례조차 받지 못한 인간군이다. 작가는 여기에 눈을 돌려 그들의 삶을 밀도 있게 조명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정과 함께 인간의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B-2) 「隱蓮」, 「失笑」, 「뉘시광」, 「장자늪」, 「뉘시터 인심」, 「물방개」, 「남회」 등의 소설에는 뉘시를 즐길 만큼 시간과 경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며, 근대시민다운 요소도 있는 인물들이 나온다. 대학의 조교수인 「수련」의 〈B〉나 「실소」의 〈B〉, 「뉘시광」의 〈C〉, 「장자늪」의 〈Y〉는 비슷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소설은 다르면서도 同一人物이라는 느낌까지 든다.

50년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시간과 경제에 여유를 갖게 된 도시민들임을 알 수 있다.

청량리에서 버스로 이십 분,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면 교문리라는 조그만 한길갓 동네가 있다. / 여기에서 동남간으로 십오 분쯤 가면 장자늪이라는 큰 늪이 있다. / 서울 근교로서는 가장 가깝고, 어족 자원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뉘시터다. [중략] 경칩을 지난 몇 번째 일요일, Y는 몇몇 친구들과 이 장자늪으로 뉘시를 간 적이 있다. /한 때 이 장자늪에만 즐겨 다닌 Y에게는 인연 깊은 뉘시터이기도 했다. /봄뉘시는 여름과 달라 아침 일찍부터 서둘 필요가 없다. /교문리 주막에서 국밥을 시켜 먹고 껌을 씹으면서 천천히 가기로 한다. /햇살이 제법 따스하다. /길가 개굴창에 두어 잎씩 돋은 들미나리가 제법 감푸르고, 양지 바른 밭둑에는 감쪽 놀란듯이 민들레도 피었다.²⁵⁾

25) 「장자늪」 「選集4」 p.249.

시간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된 소시민의 생활의 한 단면이다. 작가의 생활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상사를 作品化한 것으로 생활잡기 또는 수필적 성격이 있다.

「거지와 진주반지」, 「閑日」, 「바가지」, 「蘭」, 「心情」, 「바캉스」, 「땀」 등의 소설과 「塗說」, 「실겉이꽃」, 「산딸기」 등의 소설에도 비슷한 세계가 드러난다.

中年의 사내들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睡蓮, 실겉이꽃, 산딸기로 연상하는 그 심정도 여유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초기소설에서 보여주던 소시민들의 절박한 상황과는 좀 다르다. 경제적 궁핍과 병고에 시달리는 세계를 그린 「응혈」, 「제비」, 「합창」, 「恨」의 세계가 변모를 보인 것이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시민들은 50년대보다 비교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여유를 작품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 이 작품들이다. 대신에 작품으로서의 긴장감, 충격도가 없어 作家精神이 안일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B-3) 「옛들은 對話」, 「골목안 點景」은 이 작가의 현실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대체로 그것은 현실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동반한다.

꼬꼬씨, 생각을 해보오,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는 하더라도 월급이 뻥한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아들 둘 다 미국으로 보내고, 식모, 침모쯤이야 까짓 뭐 별 것이 아니지만 둘째 딸과 꼬망동이 한 달 학비와 용돈만도 주인 월급만치나 잇대 나갈 수 있겠소. 게다가 기껏해야 여름 두어 달밖에 안 쓰는 전기 냉장고가 둘, 얼마전에는 또 세탁기까지 들여 놓고……암튼 요즘 노다지는 광산에 있는 게 아 니고 바로 높은 자리가……²⁶⁾

〈개〉, 〈닭〉, 〈소〉가 등장하여 우화적 성격을 띤 이 소설은 개나 닭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풍자적 성격이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주인이 월급이 뻥한데도 돈을 물쓰듯 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 위 인용문이다.

이 집 〈개〉는 짚지 않는다. 주인이 도둑놈인데 누구를 위해 짚느냐는 것이 개의 항변이고, 〈닭〉도 울지 않는다. 옛날에는 세상이 어지럽고, 신수가 사나울 징조가 보일 때는 초저녁에 경세의 울음을 울기도 했지만, 요즘같이 뒤죽박죽이 된 세상에서는 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실 비판과 풍자적 성격이 있다.

초기작인 「明暗」 등에 백과 돈의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라는 비판이 비치기도 했으나 이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작가의 세계에 폭이 넓어져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보슈. 나랏돈 훔쳐다가 아방궁을 짓고 살아도 끄떡없는 세상에 그까짓 제 돈 한푼 먹은 거 무슨 탈 나겠소. 걱정마슈. 끄떡없소.²⁷⁾

어린애가 동전을 삼켜 걱정하는 엄마에게 〈고물장수 영감〉이 하는 발언이다. 〈고물장수 영감〉

26) '옛들은 對話' 「選集6」 p.163.

27) '골목안 點景' 「選集4」 p.153.

의 입에서 이런 세태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 그것을 고물장수와 같은 사람들도 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개>와 <닭>을 통해서, 또는 <고물장수>를 통해서 현실과 세태를 비판한 것은 하나의 트릭이기도 하고 풍자적 성격을 띤 것으로 오 영수의 세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 세태에 대해서 비교적 덜 관심을 보이던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 소설들이 이 작품들이다.

B-4) 「안나의 遺書」, 「피」, 「五道영감」, 「秋風嶺」 등의 작품은 분단 상황이 취급되었다.

「안나의 유서」는 6·25의 소용돌이 속에 한 女人이 어떻게 변모하고 파멸되고 있는가를 조명하고 있다.

남북 분단 후 <안나>는 가족들과 월남한다. 월남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고 이어 6·25를 맞았다. 전쟁 중에 어머니마저 잃고 부산 피난 중에 하나뿐인 동생마저 잃어 혈혈단신의 고아가 된다.

10대 소녀에 지나지 않은 이 주인공은 먹고 살기 위해 다방 레지, 술집 작부, 양갈보로 전락한다. 그런 가운데 몸쓸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를 지켜보고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었고 동정은 커녕 양갈보라고 손가락질 했다. 그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전쟁으로 해서 나는 고아가 됐다. /배가 고팠다. 철든 계집애가 살을 가릴 옷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안나라는 갈보가 됐다. /한끼 밥을 먹기 위해서 피를 뽑아 팔듯, 나는 내 몸뚱이를 파 먹고 스물 여덟을 살아 왔다. /주어진 한 생명을 성실히 살아온 죄가 갈보라는 직업에 있다면 그건 결코 내가 저야 할 죄가 아니다.²⁸⁾

이 작품을 통해서 오 영수는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대를 고발·비판하고 있다. 전쟁으로 해서 고아가 되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 갈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냉대하고 멸시하느냐는 <안나>의 항변은 곧 오 영수의 현실의식이기도 하다.

이것은 「두 피난민」 등의 작품이 6·25로 인한 파멸을 형상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전쟁이 끝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 주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고발이 추가된 것이다.

「피」는 분단 상황을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작품화한 소설이다.

국방부 정훈국 소속인 <김 충식> 소령은 6·25 때 행방불명이 되었던 동생을 10여년만에 만난다. 생사를 모르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불안하기도 했다. 6·25 이전 동생은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6·25가 일어난 해에 행방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김 소령>은 동생이 어떤 밀명을 갖고 내려온 간첩인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을 통해 동생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간첩임이 드러난다.

<김 소령>은 어떻게든 동생을 자수시키려 했다. 그래서 일요일을 택해 조용하고 외진 곳에 데

28) 「안나의 遺書」 「選集4」 p. 330.

려갔다.

자수를 권하는 형에게 동생은 도리어 형을 설득하려 했다. 형제간에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끝내 형제끼리 서로 총을 겨눈다. 동생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형은 동생을 향해 한 발 쏘고 스스로 자기자신을 쏘았다. 차마 동생의 급소를 쏘지 못하고 손등을 쏘고 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 했다. 이런 형의 심중을 헤아린 동생이 죽은 형의 가슴에 엮드려 오열한다.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이겨낼 수 없어 자결하는 형과 형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확인하는 동생의 심중을 통해 오늘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이 소설이다.

이것은 분단 상황에 대한 성찰이 좀더 역사와 민족의 문제까지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제시는 우리가 日常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것이 분단상황을 폭넓게, 깊게 인식하고 그 극복을 모색하는 데는 미흡하다. 상식을 소설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 대신 오 영수 세계의 변모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秋風嶺」은 6·25 피난 때 추풍령에서 죽은 자식을 제대로 매장하지 못했던 부모가 휴전 후에 다시 무덤을 찾아 제대로 묻는다는 이야기다.

<그>와 그의 부인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다. 추풍령에 이르렀을 때 여섯 살 된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러나 제대로 매장할 경황이 없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가 손으로 땅을 팠다. 아이를 눕히고 나뭇가지를 꺾어다 덮고 돌을 그 위에 쌓았다.

전쟁이 끝난 몇 년 후에야 이 부부는 다시 이곳을 찾아 새로 무덤을 제대로 정리한다.

이 소설은 6·25 전쟁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五道 영감」의 주인공은 이복에 며느리와 손자를 두고 아들과 월남했다.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사하자 혈혈단신이 된다. 궁핍하지만 그럭저럭 살 수는 있으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통일에 대한 전망은 어둡고 두고 온 손자와의 연결이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진다. 자기가 죽으면 후손이 없는 사람으로 처리될 생각을 하자 이 노인의 마음은 착잡해진다. 그래서 이복에 있는 손자를 자기의 호적에 올리려 애를 쓴다.

아니, 내 말은 이거웨다. 자식놈은 전사했디요. 내마저 통일을 못보고 죽어 버리면 어케 되겠시요. 내 뒤가 없다 말이웨다. 그러니까니 내 말은 이복에 있는 내 손자놈을 여기 내 호적과 함께 올려달라 이거웨다. 그래야만이 뎀에라도 아무게 자식, 아무게 손자하고 핏줄을 찾디 앙카시요. 다 같은 처지면서 그걸 글썽 못해주겠다니 [중략] 내 나이 털십을 바라보는데 언제 죽을 디 누가 알겠시요. 멧 백 니 넘어 혈육을 뻘히 두고서……내 덩말이지 자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웨다.²⁹⁾

이산가족으로서 가족과의 재결합에 대한 소망 못지 않게 후손과의 단절은 노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담당자의 이야

29) 「五道 영감」 「選集5」 pp. 146~147.

기가 사실이고 보면 우리는 분단과 이산의 비극의 한 단면을 본다.

「안나의 유서」가 6·25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소홀한 사회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한 작품이라면, 「추풍령」은 6·25의 상처를 수용하면서 담담하게 그 치유의 방법을 암시한 소설이다. 「피」는 분단 상황 이후 늘 문제가 돼 온 이데올로기와 혈연, 이데올로기와 민족의 同質性에 대한 조화의 문제를 검증한 작품이고, 「오도 영감」은 이산과 대 이음의 문제를 노인의 입장을 두고 살핀 소설이다. 초기소설에서 다룬 분단 상황과 비교할 때 시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를 검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C. 後期作品

후기에 해당하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년 동안 오 영수는 50편 내외의 작품을 발표했다. 중기에 비해 작품의 편수는 많으나 小品과 신변잡기적 성격의 소설이 많아 무게 있는 작품은 많은 편은 아니다.

이 기간에 발표된 작품 중 두드러진 소설은 새(71), 환상의 石像(71), 輿地에서 온 편지(72), 望鄉愁(76), 낮 도깨비(75), 黃昏(76), 목에 걸린 가시(77), 노이로제(77), 잃어버린 桃園(78) 등이 있고, 작품집으로는 黃昏(76), 잃어버린 桃園(78)이 있으며, 吳永壽代表作選集 7권이 나왔다.

C-1) 「망향수」와 「오지에서 온 편지」는 초기작품이나 중기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都市化, 産業化되어가는 시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망향수」의 〈할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살다가 출세하고 돈을 번 서울의 아들 집에 오면서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해 소외되어가는 노인이다.

누가 보더라도 참 팔자 좋은 할머니였다. / 할머니도 덩그런 이층집, 즉 규모는 보잘것없으나 모기업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아들네 집에 살고 있다. / 여름에도 그리 더운 줄 모르고 겨울에도 따스한 밥, 폭신한 이부자리가 있었다. / 철마라 갈아입을 옷도 군색치 않았고, 하루 세끼 식모가 날라다 주는 끼니상을 받는 외에는 별 할 일도 없었다. 밥상에는 고깃국이 아니면 생선찬도 떨어지지 않았다. / 외진 시골에서 농사 일에 찌들리고 장날이 아니면 간 생선도 구경 못해 보던 할머니로서는 과분할 만큼 늦북이 뇌었다고 할 만도 했다. / 그러나 할머니는 낮과 밤이 지겹도록 무료하고 길기만 했다.³⁰⁾

産業化時代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世代 사이의 교육 수준의 간격, 새로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아픔과 갈등은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의 세계에도 드러난다.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살아온 노인으로서 도시 생활이 건드릴 수 없었다. 우선 말 동무가 필요하고 감정이 통하는 사람이 그리웠으며 인정이 그리웠다. 그래서 동네의 가난한 노인을 찾아가 어울려 지내고 또 그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한 것이 아들 내외나 손

30) '望鄉愁' 「選集7」 p. 87.

자들에게 못마땅하게 비친다. 아들 내외나 손자들이 몸에 밴 근대화된 삶과 할머니의 전근대적인 삶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럴 때 시골에 있는 작은 아들로부터 정이 담긴 편지를 받고 시골을 그리워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사회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이 이 소설이다.

「오지에서 온 편지」는 이런 세계를 더 추구해 간 소설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정년을 아직도 한참 남겨 둔 교원으로 서울과 도시 문명에 대한 혐오로 문명과 거리가 먼 오지로 탈출한다.

1970년을 나는 내 생애를 통해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구태어 내 단 하나뿐인 아이늬이 비명에 죽어 버렸다는 사실³¹⁾ 만으로서가 아니다. /비단 내 아이늬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아무런 까닭도 명분도 없이 무더기로 죽어 갔다. [중략] 와우 아파트 도괴사건을 비롯해서 수학 여행 열차 사고의 참사, 소양강 나룻배 전복, 여객선 남영호 침몰, 인천 제철의 용광로 폭발—그밖에도 낙반, 매몰, 등 무려 이천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비명횡사를 했다. /인간의 생명이 뭇 때문에 어찌서 이렇게도 도살을 당해야 하는가?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아파트를 사들고, 차를 타고, 배를 탄 것밖에 뭇이 또 있는가? [중략] 솔직히 말해서 자비나 내가 현재 이 순간 살아 있다는 사실은 이 폐죽음의 명단에서 아직은 빠져 있다는 것 뿐이 아닌가.³²⁾

현대 과학문명이 가져온 비극이 주로 도시에서 일어나고, 문명의 최첨단에서 일어난다고 비판하고 이런 현대 문명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저할 것 없이 과학에의 맹신을 버리고 기계에서 풀려 自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조화된 생활, 이를테면 벌이 꽃에서 꿀을 먹고 사는 대신 수정의 매개역할도 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 본연의 생활이 있고, 과학과 기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잃어버린 인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는 인류의 과학 문명에 대한 회의로 발전한다.

아인슈타인군, 자비 그 막대한 물자와 시간과 정력으로 달에 가서 가져왔다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암석 몇 조각 뿐이 아닌가. 그래서 면목이 서는가? 듣자 하니 달에다 뭐 핵무기 저장고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머리 위에 핵을 이고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보다도 만연해 가고 불원간 질식상태라는데 어데 몽땅 이민이라도 보낼 화성이라도 발견했는가?³³⁾

루소를 내세워 아인슈타인을 공박하는 이 대목은 작가의 과학 문명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오 영수의 세계는 상식적이고 도식적이며 신경질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깊이와 폭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初期나 中期小說에서 보여주던 타협과 조화의 자세에서 비타협과 비판적 자세가 두드러진다. 그는 그가 살았던 70년대가 그에게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모

31) 주인공의 아들은 渡美手續中 교통사고로 죽었다.

32) '奧地에서 온 편지' 「選集7」 pp.16~17.

33) '낮도깨비' 「黃昏」(創作과 批評社, 1976) p.21.

습으로 비친 것 같다. 이것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하는 시대에 대한 성찰이요, 비판인 동시에 과학 문명에 대한 성찰로 보인다.

C-2) 「기러기」, 「노이로제」, 「세배」 등의 작품과 위에서 검토한 「오지에서 온 편지」, 「낮도 깨비」 등의 소설은 현실 세태에 대한 비판도 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지난 날의 노다지란 어휘는 감투로 변했고 그 질에 있어서는 말쑥이 아니잖아. 노다지는 땅 속에 묻힌 주인 없는 금을 파내기나 했지만 지금의 감투 노다지는 백성들의 세금을 마치 호박씨 까 모아서 한입에 털어 놓듯 해도 그저 지당하웁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정상인가? /이 봐, 나도 한해 동안 열 가지 이상 세금을 물고 있네. 세금을 무는 것도 이제는 지난 날과 같이 징수원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그것도 또 엄청난 고리로) 물어야 한다고——이건 고자세가 아니라 위압이요, 불호령이야. /그렇다고 불평따위 말한 마디 잘못했다가는……알지 응? [중략] TV는 한 술 더 떠서 청각뿐 아니라 시각, 감각 신경까지를 쭈셔서 저질의 코미디가 아니면 고증을 무시한 안방 연속극, 노래라는 게 사랑(?)과 안보면 나는 죽고 못살아——따위 언어를 배고는 한 줄도 가사를 못 쓰고, 그 찢달막한 채신에 개구리 삼킨 뱀처럼 몽땅몽땅한 다리로 어느 나라 무슨 놈의 춤인지 국적이 애매한 몸짓…… 그나마도 반은 선전과 광고가 차지해 버리니 도대체 그 놈의 상품 원가가 얼마나 먹히기에 그렇게 비싸다는 광고 선전이나 말이다. /결국 그렇잖아. 허깨비 핫바지는 소비자가 아닌가. 듣고 보자 하니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아 그놈의 TV 당장 떼 없애라고 팜을 질렀다는 것도, 행정 능력도 행세도 못하면서 걸핏하면 법적 조치, 엄중 처단——의 엄포의 남발……³⁴⁾

오 영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현실 세태의 여러 단면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이 작가가 초기작과는 달리 현실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폭넓게 그리고 깊게 탐색하지 못한 신문기사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데 그 한계가 보인다.

이와 비슷한 비판은 「기러기」, 「세배」, 「오지에서 온 편지」, 「낮도깨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 70년대에 들어와 이 작가의 세계가 상당히 변모돼 있음을 엿보게 한다.

C-3) 「고향에 있을 무렵」(74), 「立春前後」(74), 「말을 앞세웠던 후회」(74), 「화장산에 얽힌 이야기」(74), 「잡초」(74), 「珊瑚 물부리」(76), 「黃昏」(76) 등의 소설은 대체로 오 영수의 소년시절의 회상을 묘사한 소설이다. 특히 74년 전후해서 소년시절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쓴 것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대체로 老齡에 접어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이기도 하지만 이 작가의 경우는 73년초 그의 나이 60세 때 절제수술을 한 위궤양이 재발되어 죽음의 그림자를 안게 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³⁵⁾

대체로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인간은 과거 회상에 빠지기 쉽다. 74년 전후해서 발표한 작품들이 대체로 소년시절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또는 회상을 소설화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이런 소설에 나타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4) '노이로제' 『韓國現代文學全集25』(三省出版社, 1978) pp. 411~414.

35) 『吳永壽代表作選集』序 참조.

① 그의 고향은 부산과 경주 중간쯤에 위치한 언양이란 산간 고읍이다. 5, 6백 호가 될까 말까, 물이 맑고 들이 많으며 미나리가 유명하다.

② 기차도 전기도 라디오도 영화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고향의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다. 봄이면 뽕꾸기의 울음과 더불어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단풍과 감이 풍성하게 익는 물 맑고 바람 시원한 산간 마을이다.

③ 어릴 때 선친은, 일쭉 그를 불러다 사랑채 담장 밑 풀을 뽑게 했다. 그럴 때마다 풀은 어릴 때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두고 위만 뜯으면 다음에는 더 길고 힘이 든다고 하셨다.

④ 철이 들까 말까 하던 어린 시절 조부는立春을 하루 앞두고는 머슴들을 시켜 장원의 안팎에 쌓인 낙엽들을 걷고 쓸어다가 채마밭에 쌓고 불을 질러 태우고 외양간 두엄을 말끔히 쳐냈다.

한 때 歷史와 社會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작가가 다시 지극히 개인적인 데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것도 현재의 그가 아니라 과거의 그——곧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 그려져 있다. 그것은 도시적 삶에 지치고 혐오를 느낀 사람들이 갖기 쉬운 심리다.

이런 문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준다. 사람들은 뒤를 돌아 볼 겨를없이 앞만 보고 뛰다가 잠시 쉬게 될 때, 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와할 때 자기 성찰의 계기를 갖는다. 그럴 때 이런 작품은 휴식과 위안을 주는데 初期作의 경우와 비슷하다.

한 때 사회와 역사에 관심을 두고 쓴 작품들이 항변조이거나 무념조의 것 또는 현실과 역사를 깊이 성찰하지 못한 채 표피적인 현상에 눈을 돌려 비판한 데 그쳐 문학적 향기와 깊이를 잃은 것과 비교할 때 이런 문학에는 '안개같이 서려있는 애수' 또는 '한국적인 고차원의 서정'³⁶⁾과 서로 연결되어 그의 세계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C-4) 「새」(71), 「환상의 石像」(71)은 離散家族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새」의 주인공 <나>는 이복에 가족을 두고 월남한 사람이다. 월남할 때는 쉬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고 한달이면 돌아오겠다고 가족과 약속했다. 그러나 20년이 되도록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온 20년간 그는 가족들 생각에 편안한 날이 없었다. 이런 그를 주변 사람들은 망향병의 발작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생각이 오랫동안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생각을 좀 해 보라고. 지척에다 혈육을 두고 이십 년을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다니…… 이 무슨 저주받을 백성이냐 말야. 잔 돌려. 부어, 가득. / 육십 노모를 두고 왔어. 세 살짜리 갓난이와 아내를 두고 왔어. 한달이면 돌아온다고 했어. 자, 반계. [중략] 카아—— 나를 망향병의 발작이니 넌두리니, 새삼스럽다스니, 지치지도 않았나니 하고 [중략] 자 잔 돌려. 부어, 카아. 가슴에 피를 말려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린 이십 년…… 땅을 치고 피를 토해 죽어도 시원찮아. / 자, 쪽 들고 돌려. 무슨 소리. 괜찮대두. 가득 따라. / 동대문 시장에서 피복 장사로 수천 대를 모은 내 이웃 사람이 있었어, 안변 사람야. / 카아—— 이 사람이 늘 한다는 소리가 어디 하늘이 무심하겠느냐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자, 반계. 출근 이렇게 이십 년 동안을 꼬박 독신으로 기다리다가 지난

36) 金素雲, “吳永壽의 小說쟁이”(黃昏) p. 295.

가을 교통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어. [중략] 근데, 그 친구 운명 직전까지 나도 곁에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다는 소리가 말야. 잔 쥘야지. 음, 땀어. 죽은 귀신에게야 설마하니 삼팔선이 없겠지 하고 눈을 감더군.³⁷⁾

분단과 이산은 우리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에 따른 엄청난 비극과 희생과 고통은 우리 민족이 지닌 무거운 짐이다. 이런 문제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작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6·25의 상처가 준 아픔과 그 치유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이산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분단 상황을 검증했다는 점은 「오도 영감」과 비슷한 데가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작품 끝에 밝힌 대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적십자 선언 한 달 전에 발표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이산의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작품을 분단·이산과 관련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비평가도 있다.³⁸⁾

이 세계는 다음에 나온 「환상의 석상」에서도 탐색과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

핏줄을 그리워하고 핏줄을 찾으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요, 그것은 논리 이전의 문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작품 「피」에서 다루어진 주제인데 「환상의 석상」에서도 계속된다.

피는 어떠한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도 결코 이에 우선 될 수 없는 그 이전 가장 순수한 것, 한 민족의 피는 그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수 있는 생명——북한 적십자는 쾌히 응하라. 거부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거부할 명분이 있겠는가.³⁹⁾

이 소설이 발표될 무렵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실제로 가족의 상봉은 없었다. 그 후 14년이 지난 1985년 8월, 처음으로 극소수의 이산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투영시킨 것이 이 소설이다. 그것을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생각해 본다는 데 비극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論議해 온 作品世界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나 소년·소녀를 등장시킨 소설에서는 인간은 原初적으로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情을 주고 받는 것에서 위안과 행복감을 갖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오 영수의 人間觀의 한 편린을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의 소설은 초기소설에 많이 나타난다.

나) 초기소설에는 村民 또는 鄉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으며 이

37) '새' 「選集6」 pp. 175~176.

38) 金允植 編, 「離散·分斷文學代表小說選」(東亞日報社, 1983).

39) '幻想의 石像' 「選集6」 p. 242.

들이 거의 無學이고 근대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며 빈궁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제시한다. 태어날 때부터 선량하고 인정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따뜻해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기소설에서는 이런 村民들보다 社會經濟的으로 한 단계 아래인 머슴, 종, 식모, 깊은 산골로 도피해 간 사람들을 등장시켜 村民들의 세계를 심화·확대하여 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촌민들처럼 無學이고 근대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남의 집 중이거나 머슴, 또는 식모, 더 나아가 호적에조차 이름이 오르지 못한 불우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본성과 순박함을 잃지 않고 있다고 제시한다.

인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文化나 文明의 세례를 덜 받은 인간들은 모두 착한 성품과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人情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이런 인간에 애정을 느끼고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 영수의 세계이고, 그의 인간관의 단면을 엿보게 하는 세계다.

다) 小市民은 초기소설부터 후기소설까지 고르게 등장하는데 시간의 진행과 더불어 다르게 그려 놓고 있다. 초기소설에 나오는 소시민은 50년대적 상황 속에 빈궁과 불우한 처지에서 좌절감, 패배감, 실의, 恨 등을 지닌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여 그들의 불우한 처지를 작가는 동정하고 있으며 중기소설의 소시민은 어느 정도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가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낚시하는 소시민이 많다. 60년대의 경제적 안정과 소시민의 안정된 삶의 반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후기소설은 70년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부작용과 거기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현실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진 소시민이 등장하고 脫都市와 桃園에 대한 동경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오 영수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세계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 시대를 살았던 소시민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런 소시민의 태도와 삶을 작가는 긍정적으로 그려 놓고 있다.

라) 중기소설부터 현실과 세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후기소설에 와서는 그 비판의 정도가 가열되고 있으며 항변의 목소리도 도처에 散見된다. 적어도 초기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현실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현실 도피, 현실외면이라는 通說을 재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 영수 소설의 세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어 갔다는 것을 뜻한다.

마) 역사와 관련된 分斷狀況에 대한 성찰은 초기작에서 후기작까지 지속되었는데 초기에는 빨치산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 끼여 희생되는 사람들, 6·25 전란의 와중에 삶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사람들의 세계를 그렸으며, 중기에는 전란의 후유증, 또는 상흔에 대한 회생의 치유에 소홀한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린 소설이 나타났다. 후기소설에는 分斷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그린 소설이 나타나 오 영수는 시간과 더불어 分斷狀況이 가져온 문제를 끊임없이 형상화한 작가임이 드러난다. 이 점도 역사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通說을 再考하게 하는 점이다.

바) 주로 후기소설에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그린 소설이 많고 그의 소설에 私小說的 요소가 많다는 것도 드러났다.

따라서 오 영수의 작품 세계는 통설과는 달리 多樣하며 작품 활동의 계속됨에 따라 變化·擴大되어 왔음을 보게 된다.

Ⅲ. 作 中 人 物

오 영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A型: 영이(移徙), 윤이(윤이와 소), 형이(아찌야), 철이(老婆와 少年과 닭), 창기(누나별), 웅아(胎春期), 옥이(옥이 생일 날), 옥이(옥이란 아이), 임마(제비), 영옥이(Y소년의 경우), 걸이(두꺼비), 아이(골목안 點景), 아이(맹꽂이), 아이(畜犬記) 등

B型: 남이(남이와 옛장수), 석이·분이(머루), 두칠이·순이(대장간 두칠이), 역수(雪夜), 이가·마동(두 피난민), 걸이 엄마(霜春), 千哥와 白哥(친가와 백가), 해순이(갯마을), 춘례(龍淵插話), 선아(胎春期), 구칠이(候鳥), 윤도(개개비), 감방장(明暗), 양동옥 부부(메아리), 김가·박가(은빛골 이야기), 돌이 엄마(소쩍새), 월례(섬에서 온 食母), 순옥이(산딸기), 덕순이(도라지꽃), 두술이(플러간 이야기), 용수(울릉도 뱃사공), 나(봄) 등.

C型: 화산대이(화산대이), 최노인·화동노인(두 老友), 박노인(며), 할머니(고개), 오도 영감(五道 영감), 독섬 할머니(독섬 할머니), 할머니(望鄉愁), 영천댁(두메 母子), 윤생원(지나 버린 이야기), 정노인(플러간 이야기), 종우 삼촌(終車), 추강 선생(春寒) 등.

D의 ①型: 현이(이사), 장철(朴學道), 섬(비오리), 등산모(어느 나무 풍경), 명구(凝血), 종우(終車), 민우(候鳥), 성도(한탄강), 박두현(合唱), B(恨), Y(낙시狂), Y(장자늬), R(낙시터 인심), 나(섬에서 온 식모), 그(五道 영감), 나(바가지), 나(산딸기), 그(맹꽂이), 그(도라지꽃), 그(제자와 친구와), 나(奧地에서 온 편지), 나(매미), 그(畜犬記), 나(어린 常綠樹), 그(술), 나(어떤 애처가), 나(노이로제), 나(잃어 버린 桃園), 순이 아버지(늙은 칼), 유씨(튼 소문) 등.

D의 ②型: 나(존뜨기의 辯), 나(病床記), 少年(코스모스와 소년), 나(東都戰線), 나(蘭), 남편(心情), 소년(요람기), 나(뜸), 나(入院記), 나(화장산에 얽힌 이야기), 나(雜草), 나(말을 앞세웠던 후회), 나(立春前後), 나(고향에 있을 무렵), 나(珊瑚 물부리), 나(목에 걸린 가시), 나(노을), 그(歲拜) 등.

其他: 박학도(朴學道), 박중위(後日譚), 마정옥(睡蓮), 안나(안나의 유서), 김충식(괴), 장선생(괴짜), 나(새), 그(환상의 석상) 등.

A型은 어린이들이다. 오 영수는 어린이들을 인간의 原型으로 설정하고 인간 本性을 탐구하고 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역시 착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 영수가 인간을 긍정하게 된 배경의 하나다.

우리 나라 작가 가운데 어린이를 많이 등장시키는 작가에 黃順元이 있다. 그의 「별」, 「산골 아이」, 「소나기」, 「매」, 「괴」 등의 소설에는 어린이가 많이 등장한다. 황 순원은 이런 어린이들을 통해 주로 인간의 꿈과 상상의 세계를 탐색했다면⁴⁰⁾ 오 영수는 어린이의 본성이 어떤가를 탐

40) 金永和, 「黃順元의 短篇小說 I」 「韓國言語文學23」(韓國言語文學會, 1984) 참조.

구하고 있다.

B型은 한국의 庶民, 서민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다.

남의 집 식모이거나 머슴이 아니면 종이 많다. 남이, 순이, 선아, 월례, 순옥이, 덕순이, 돌이, 엄마 등은 식모이거나 전에 식모로 있었던 인물이고, 두철이, 두술이, 김가 등은 머슴이었으며 춘례는 종이였다. 설사 그런 신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으며, 知的水準에 있어서도 거의 無學이다. 그러면서도 성격은 선량하고 순진하다.

작가는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켜 놓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착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人間像에 대해 강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C型은 老人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불우하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산맥이, 망향수의 할머니, 영철맥 등이 있는가 하면 노년의 쓸쓸한 삶과 사후의 문제를 걱정하는 종우 삼촌, 추강 선생, 오도 영감 등 비애와 恨이 있는 인물들이다.

황 순원의 소설에도 불우한 노인들이 많이 나와 작가의 따뜻한 동정을 받고 있는데 오 영수의 소설도 그 점은 비슷한다.

D의 ①型은 小市民的 속성을 지닌 인물들이다. 직업에 있어서도 교원이 많다. 현이, 장철, 섭, 종우, 명구, 민우, 성도, 박 두현, B(수현), 나(섬에서 온 식모) 등은 현직 교원이거나 전직 교원들이다. 이들은 학교 교원들이 지니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등산모, Y(뉘시표), Y(장자늬), R, 나(어린 상록수) 등은 뉘시를 좋아하는 인물이며, B(恨)는 詩人이다. 나머지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비슷한 유형, 비슷한 성격의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은 작가의 分身이거나 작가와 연대감을 지닐 수 있는 그의 주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음미하면 등장 인물과 작가와의 공통적 요소가 있고 연대감을 지니고 있어서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준다. 그만큼 작가의 주변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D의 ②형은 거의 작가 자신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 인물들을 종합하면 시골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성인이 된 후 작가가 되지만 늘 몸이 약해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都市的, 現代的인 것보다 鄉村的인 것, 在來的인 것에 더 많이 애정을 갖고 있으며, 도시보다 시골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을 얻고 있다. 뉘시나 蘭을 키우는 일 등 靜的이고 여유 있는 일에 몰두하는 인물이고 道家的 자연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오 영수 본인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오 영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인물을 제외하면 거의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⁴¹⁾이다. 그의 소설을 읽고 나서 등장인물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단조로운 인물이며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인물이다. 행동성이 결여되어 상당히 靜的 인물(static character)⁴²⁾

41)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77), p. 73.

42) E. Muir, *The Structure of the Novel*, 安容喆譯(正音社, 1975) p. 23.

에 가깝다.

오 영수의 작중인물이 平面的人物과 靜的人物이 많다는 것은 인간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안목이 모자라다는 것을 드러낸다.

산업사회가 시작된 60년대 이후에 나온 소설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물보다 과거에 매달려 사는 人物을 그대로 선택하고 있어 그의 인간 탐구의 한계가 드러나고 인간과 사회, 인간과 시대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는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IV. 背 景

오 영수 소설의 배경은 크게 시골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시골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머루」(50)에서부터 「續 두메 낙수」(78)까지 40편 내외,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남이와 옛장수」(49)에서부터 「歲拜」(78)까지 60편 내외가 된다.

머루, 갯마을, 胎養期, 메아리, 은넛골 이야기, 소쩍새, 오지에서 온 편지, 잃어버린 桃園 등은 시골을 배경으로 한 소설 중 佳作에 속한다.

이 소설들은 「갯마을」을 제외하면 시골 가운데서도 깊은 산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한가로운 농촌, 또는 전원 풍경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이다. 이것은 그의 고향과 그 주변에 대한 작가의 이해와 관찰의 폭과 넓이와도 관계가 있고 산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데서 가능했을 것이며 산골에 대한 애착 나아가서 도가적 자연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곳에서만 인간은 본래 지닌 착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 인간 관계를 갈등 관계로 보지 않으려는 그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그가 지닌 道家的 思想과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그의 세계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시골을 배경으로 했을 때, 한가로운 농촌이나 田園, 또는 토지 소유관계를 통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농민들이 갖는 퇴영적이고 나태한 삶이나 질은 보수성 등의 문제가 자주 드러나는데 오 영수의 소설은 그런 세계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남이와 옛장수, 화산댁이, 박학도, 제비, 候鳥, 合唱, 恨, 五道 영감, 새, 맹꽂이, 망향수, 노이로제 등 몇 편의 가작이 있다.

그러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대개 도시의 변두리, 그것도 産業化되기 이전의 — 1960년대 이전 — 도시의 변두리다. 도시에 살고 있을 뿐, 태생은 시골사람들이고 일시 도시에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도시적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배경에 대한 작가의 탐구가 부족해서 小道具에 불과하고 배경을 통한 메시지의 구현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도시적인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작가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오 영수는 도시에 살았던 기간이 길고, 그런 일상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작품화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소설들이 대개 私小說的, 수필적 요소가 많아 도시의 삶을 탐구하는데는 미흡했다.

오 영수 소설에 시골과 도시 외에 낯시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10여편 된다. 「어느 나무의 풍

경」(56)에서 부터 「三湖江」(76)까지 낚시터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은 이 작가가 낚시를 즐겨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낚시와 관계되는 소설은 산문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신변잡기, 또는 수필에 가까와 소설로서는 두드러진 것이 못된다.

오 영수의 소설 가운데 시골을 배경으로 하면서 道家的 思想이 스며 있는 작품들이 돋보인다. 이것은 작중인물들을 소박한 시골사람들을 설정해서 쓴 소설들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V. 技術의 樣相

A. 視點과 거리

오 영수 소설을 視點(point of view; focus of narration)의 네 가지 양식⁴³⁾에 따라 분석하면 1인칭 소설이 비교적 상당수에 이른다. 같은 1인칭 소설이라 하더라도 主人公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양식(1인칭 A형)과 副人物이 主人公의 이야기를 하는 양식(1인칭 B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1인칭 A형

촌뜨기의 변(51), 病床記(52), 東部戰線(55), 내일의 삽화(58), 안나의 유서(63), 蘭(64), 물방개(66), 남회(66), 부채(67), 바캉스(68), 뜬(69), 바가지(69), 새(71), 오지에서 온 편지(72), 매미(72), 入院記(73), 對話(74), 화장산에 얽힌 이야기(74), 雜草(74), 말을 앞세웠던 후회(74), 立春前後(74), 고향에 있을 무렵(74), 피로(76), 전망증(76), 立秋前後(76), 회신(76), 노이로제(77), 잃어버린 도원(78) 등 30편 내외.

② 1인칭 B형

후일담(60), 섬에서 온 식모(65), 도설(67), 독섬 할머니(69), 산딸기(70), 어린 常綠樹(76), 실향(76), 산호 물부리(76), 黃昏(76) 등 10편 내외.

대부분의 소설의 視點이 3인칭인 점과 비교하면 오 영수 소설에는 1인칭 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에 준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점에서 私小說의 性格⁴⁴⁾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私小說의 性格의 소설이 많다는 것은 작가와 작중인물간의 거리(distance)⁴⁵⁾가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드러낸다. 실제로 몇 작품은 작중인물과 작가가 同一人物이다.

43) C. Brooks & R. P.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9) pp. 659~664 참조.

44) 私小說의 概念·性格·특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했다.

① 小林秀雄, 「私小說論」(小林秀雄初期文藝論集)(東京:岩波書店, 1980), p. 372.

② 小田切秀雄, 「現代文學史上卷」(東京:集英社, 1975), pp. 222~228.

45) C. Brooks & R. P. Warren: 앞 책 pp. 664~666 참조.

그래도 친구들이 그림고 문단 소식이 궁금해서 한 해 한두 번 좁은 서울 걸음(文友들의 말을 빌리자면 서울 出入이다.)을 하게 된다. 차에서 내리는 즉시 M짜롱이나 R다방으로 가 앉았으면 보곶던 친구들이 한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반가운 나머지 손을 꼭 잡고 감개무량, 그러나 상대는 갖잡은 꼴이나 보는 듯 씨익 웃고는……⁴⁶⁾

아무래도 증세가 심상치 않다. /오랫동안 위궤양을 앓아온 경험에 비추어, 식후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전후해서 거의 예외없이 오던 통증이 이번에는 불규칙적이고 또 지속적이다. 그뿐 아니라 전 같으면 이런 경우 밀크 같은 유동식을 조금 먹으면 대개는 일시적이거나 통증을 멎기도 했지만 이번 증세는 그렇지 못했다.⁴⁷⁾

부산과 경주 한중간쯤에 유독 돌이 많고 미나리로 알려진 4백~5백 호의 언양이란 조그마한 산중 고읍이 바로 내 고향이다. /여기에서 10여 내를 살아온 오의관의 손자로서 시자영자(時字泳字)의 만이로서 태어났으나 연년생인 지차 동생에게 젖을 빼앗기고 밥물로만 길렀기 때문에 영양불실의 허약아로서 돌이 지나도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는 말을 할머니와 고모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왔다.⁴⁸⁾

이건 아무래도 증세가 좀 이상하다. /전에도 때때로 이런 증세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때는 생활에 쫓겨 그런 증세쯤 따지고 캐고 할 겨를도 없었고, 또 장기간의 투병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쯤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나로서는 생활환경의 일대 혁명적 모험을 한 것이 서울을 떠나 도피가 아닌 현재의 낙향생활(落鄕生活)이다. /생활의 단순화, 거의 완전하게 가까운 해방과 자유——이것이 오래전부터의 내 동경과 꿈이었다.⁴⁹⁾

위에 인용된 소설의 화자는 곧 작가 자신이다.

1인칭 B형의 소설, 이를테면 도설, 산딸기, 섬에서 온 식모, 실향, 산호 물부리, 황혼 등에 나오는 화자는 작가 자신이거나 그의 분신 또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작가와 작중인물과의 거리가 없다.

이 점은 3인칭 소설에서도 작중인물과 작가의 거리가 좁은 소설이 많이 있다.

「코스모스와 소년」, 「요람기」 등에 나오는 <소년>들, 「박학도」의 <장철>, 「候鳥」의 <민우>, 「두꺼비」의 <玄>, 「실소」의 , 「장자늪」의 <Y>, 「심정」의 <남편>, 「오도 영감」, 「거지와 진주」, 「시계」, 「괴짜」, 「閑日」, 「명촌 할아버지」, 「실걸이꽃」, 「맹꽁이」, 「도라지꽃」, 「제자와 친구와」, 「畜犬記」, 「三湖江」, 「어느 여름밤의 對話」, 「목에 걸린 가시」 등에 나오는 <그>도 작가와 같거나 그의 분신 또는 그림자들이다.

이처럼 오 영수 소설에는 작가와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작가의 경험, 일상사,

46) '촌뜨기의 癡' 「選集1」 p.157.

47) '入院記' 「選集7」 p.109.

48) '고향에 있을 무렵' 「選集7」 p.225.

49) '읽어 버린 桃園' 「吳永壽 落鄕短篇集」(栗成社, 1978), p.145.

心鏡이 투영된 소설이 많다. 그 점에서 私小說의 性格의 소설을 많이 쓴 작가가 오 영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B. 간결한 文章·描寫·場面中心·匠人精神

버들가지가 피고 제비가 왔다. 흙바람이 불고 보리가 알을 뱉다. 소낙비가 씻어간 풀밭 언덕에 소들이 눈을 감고 앉아 천천히 삭임질을 하고, 산봉우리에 솜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랐다. 방학이 왔다. G는 한결 같이 잔디 고운 언덕배기 뽕오얀 외출기 길로 병원엘 오르내렸다. 목에는 유난히 하얀 흰 붕대가 감겼고, 손에는 언제나 약병이 들렸다. 삼십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병원에의 길이 G는 무척 고단해 보였다. 소년은 매일같이 길목에서 G를 기다려 교회당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의 좋은 오뉘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때도 있었고, 둘을 차면서 말없이 가는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붓동랑 돌다리에 걸터 앉아 발끝을 물에 담그고, 숲 속에 단 두 형제가 사슴과 함께 사는 이야기도 했다. 어떤 때는 길가 풀밭에서 크로바를 찾기도 했다.⁵⁰⁾

이 인용문을 세밀하게 읽으면 오 영수 소설의 技法의 특징이 드러난다.

짧은 文章으로 화가가 캔버스의 한쪽 귀퉁이에서 다른 쪽으로 색을 칠하듯 言語로 描寫하고 있다. 따라서 한 폭의 그림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서정적인 봄의 시골 풍경과 이런 풍경에 어울리는 少年과 少女의 모습이 독자의 마음 속에 선명히 부각된다. 이것은 그가 한 때 그림을 그렸었다는 사실⁵¹⁾을 상기하면 소설을 쓰는데도 화가와 같은 手法이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場面中心의 특징이 드러난다.

따라서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보여 주어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기법으로 쓰여졌다.

오 영수의 소설은 대체로 人生의 繪畫를 독자에게 보여 주려는 요소가 강하다. 이를테면 작가의 생각과 느낌은 등위로 감추고 등장인물의 言行만을 독자에게 보여 주어 성공을 거둔 「明暗」같은 작품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오 영수는 單文으로 對象을 描寫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작가이며, 匠人精神에 투철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기법의 우수성의 與否를 說明인가 描寫인가 하고 물을 때 描寫를 꼽을 수 있고, 이것은 작중인물이나 배경을 독자에게 직접 보여 주어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독자들은 어떤 면에서 영악해졌다. 다른 사람의 설명(작가의 설명)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덜 가지지만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믿는다. 따라서 우수한 기법은 작가가 뒤에 숨어 있으면서 人物과 場面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두에 사람들은 두더지처럼 또 땅을 파고 잔디를 일구기에 바빴다. / 두견새 울음이 매끄러워지면

50) '코스모스와 少年' 「選集1」 p.150.

51) '故郷에 있을 무렵' 「選集7」 p.247 참조.

못견디겠다는 듯이 어느 산골이고 밭두렁이고 길가고 할 것 없이 진달래가 활짝 핀다. 자꾸만 나들이 가고 싶은 좋은 날씨였다. 석이가 고므재 보리밭에 거름을 내던 날 분이와 연이는 산나물을 뜯으러 왔다. 고므재 양달에는 산나물도 많았다. 석이도 거름을 깔고 나서 물오르기 전에 싸리울쇠이나 한 짐 해 갈 양으로 산등을 타고 올라갔다. [중략] 석이는 연송 머뭇거리면서 한자쯤 사이를 두고 분이 옆에 앉았다. 내려다 보이는 석이네 보리밭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 올랐다. 분이도 석이도 말이 없었다. 분이는 분이대로 석이는 석이대로 안타까운 동안이 안타깝게 지나갔다. 분이는 재피(산소) 눈을 해가지고 연신 입술에 침을 바르면서 가슴을 달막이는데, 석이는 낮끝으로 잔디뿌리를 파고 있었다. 이 때, 보닥솔 밑에서 장끼가 까투리를 따르며 흘레를 펴는데 까투리는 자꾸만 달아나고 있다. 이윽고 까투리는 다음 보닥솔 밑으로 숨어 버린다. 장끼는 한결같이 따라갔다. 분이는 발은 침을 꼴깍 삼키고 /“조놈에 까투리 소갈머리도 없이……”/그러고는 손 등으로 햇살을 가리고 반듯이 누워 버린다. /골짜기에서 배꾸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⁵²⁾

배경에 대한 시각적 제시와 함께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독자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설명이 배재된 채 독자에게 그대로 제시되어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젊은 남녀의 심리나 성격을 이 인용문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어서 오 영수는 그만큼 기교가 세련된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후기에 나온 다른 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개울둑에서 비로소 분지 전체를 둘러본다. /잠목이 우거진 산 사이사이 산밭치, 밭두렁, 개울가 어디 할것없이 분지 전체가 복숭아꽃이다. 간혹 풀이 오르기 시작한 수양버들과 아직 움이 트지 않은 큰 나무가 있긴 하나 그것은 헤아릴 정도다. /그러고 보니 나는 지금 복숭아꽃 장막 속에 있다. 그러면서도 꽃 같지가 않다. /산 속에 들어가면 그 산을 모르듯이 꽃장막, 꽃구름 속에서는 꽃이 꽃갈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가만 있자, 무릉도원(武陵桃源)이란 바로 이런 데가 아닌가도 싶다.⁵³⁾

이 인용문은 한폭의 그림이다. 작가는 언어로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선과 색을 가지고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場面中心的이요, 描寫爲主의 技法이 잘 드러나 있다.

오 영수는 천성적인 예술가적 소양이 있다.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어낸다는 匠人意識과 그 정신도 있다. 文學도 음악이나 회화처럼 예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 주제나 사상보다 기법, 곧 藝術性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작품을 제작한 것이 이 작가의 세계이다. 이것이 그의 예술관, 나아가 文學觀이기도 하다. 그의 文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주제가 빈곤하다, 사상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藝術性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 영수는 文學創作에서 藝術性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경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문학의 특징을 이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2) '머루' 「選集1」 pp.23~25.

53) '잃어 버린 桃園' 「落鄉短篇集」 p.169.

VI. 韓國的 要素

A. 素材 / 說話

文學의 소재는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한 작가가 어떤 소재를 특히 많이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그의 작품의 성격이 드러난다. 독자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소재냐, 혹은 친근하게 느끼는 소재냐의 차이에 따라 작품과 독자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오 영수는 한국 전래의 설화에서 소재를 찾거나 說話가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의 初期作에서 後期作에 이르기까지 자주 나타나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코스모스와 少年」(1953, 파랑새)……학이 풀잎을 뜯어 물고 와서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 「갯마을」(1953·12, 文藝)……마을 뒷산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마을에 과부가 많다는 이야기.
- 「누나별」(1954·5, 學園)……은서가 죽어서 반딧불이 됐다는 이야기.
- 「龍淵挿話」(1954, 文藝)……자라와 잉어가 살고 있다는 용소 이야기.
- 「은넛골 이야기」(1961·4, 現代文學)……삼을 캐다 죽은 형제 이야기.
- 「소쩍새」(1962·7, 現代文學)……시어머니 학대에 죽어서 밤알꽃이 됐다는 며느리 이야기.
- 「漫畫」(1966·4, 現代文學)……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 「실겉이꽃」(1968·3, 現代文學)……바다에 빠져 죽은 과부가 실겉이꽃이 됐다는 이야기.
- 「幻想의 石像」(1971·12, 月刊文學)……충신이 죽어서 허깨비 새가 됐다는 이야기.
- 「산호 물부리」(1976, 黃昏)……형제의 효를 비교한 이야기.
- 「어린 상록수」(1976, 黃昏)……삿갓 장수와 소금 장수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위에 열거한 說話들은 대체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다. 이런 설화들을 적절히 소설 속에 배치하여 독자들에게 근접시키고 있다.

“반딧불도 참말 불이가?” / “그럼 불이잖고!” / “그럼 왜 바람에도 물에도 안 꺼지나?” / “...” / “그건 은녀(銀女)의 넋이라 그럴대” / “은녀의 넋이 뭔데?” / “내 얘기할까?” / “그래, 그래 얘기해!” / 이웃집 누나의 얘기다. / “옛날, 어느 먼먼 산골에 단 두 집이 살았는데, 한 집은 이씨고 한 집은 김씨더라 ——” / “그래?” / “두 집은 참 의종지 형제 같이 지냈대 —— 그러던 이씨 집에서는 아들을 낳고, 김씨 집에서는 딸을 낳대 ——” / “그래 어쨌어?” / “이씨집 아들은 금동(金童)이고 김씨집 딸은 은녀(銀女)라 불렀대. 그래서 두 집 부모네들은 두 아기가 장성하면 혼인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대 —— 그러니까 금동이나 은녀도 정말 오뎀처럼 정답게 컸대 —— [중략] 그런데 나이 열 여섯되던 여름에 금동이는 산에 나무를 간 채 돌아오지 않았대 —— 그래서 은녀도

기다리도 못해 초롱에 불을 켜 들고 금동이를 찾아 나갔대. 들로 산으로 밤새 찾아 헤매도 금동이는 없었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 그래도 은너는 밤마다 초롱을 켜 들고 금동이를 찾아 나갔더라 —— / “그래 금동이는 어데 갔는고?” / “보나마나 범에게 물려갔겠지!” / “그래 안 오는 금동이를 은너는 날마다 기다리고 밤마다 찾아 헤매다 은너도 그만 애가 말라 죽었대. 그래 은너는 죽어서 반딧불이 됐대. 그래서 여름만 되면 밤마다 저렇게 불을 켜 들고 금동이를 찾아 헤맨대 ——”⁵⁴⁾

고향에 이웃집 <봉희 누나>를 두고 B시에 내려와 피난 생활을 하는 소년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반딧불 이야기를 해주던 누나를 회상하는 대목이다. 별과 반딧불과 따뜻한 것이 있는 고향을 좀더 시골의 정취에 어울리게 그리면서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인 독자라면 비슷한 경험을 가졌고 비슷한 이야기를 어린시절에 들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더 인용해 본다.

차를 마시면서 제주도 일주의 인상이랑 잡담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실겉이꽃이란 게 있더군요?” / 하니까 K씨가 / “노란 꽃인데 낙시 바늘같은 가시가 돋았죠?” / 하기에 그렇더라니까 K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꽃을 지방에 따라서는 실겉이꽃, 옷겉이꽃 또는 베겉이꽃이라고도 한다면서 그 꽃에 대해서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 옛날, 어느 외로운 바닷가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았다. 좋은 재웠자리가 있으나 입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푼푼이 모은 돈을 가지고 대척로 나가 옷감(베)을 사가지고 돌아오게 됐다. 그런데 과부가 사는 마을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일어난 풍랑에 배가 기우뚱거리자 그 천보따리를 그만 물 속에 빠뜨려 버렸다. / 보따리를 건지려고 이 과부도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 그러나 다시는 과부도 보따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부의 넓이 실겉이꽃이 돼서 낚시바늘 같은 가시를 달고 사람만 얼썌하면 옷을 걸어 당기고 한 번 걸면 가시가 부러지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는다 —— 고. / 그는 “물귀신이 아니라, 실겉이꽃인 걸요!” 하고 굳이 이야기를 얹던 해연이를 생각하고 한동안 숙연해진다. 어찌서 해연이는 슬픈 전설의 실겉이꽃이라고 했을까? 그럴 사연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실겉이 꽃, 해연이, 해연이, 실겉이 꽃, 뭐가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다.⁵⁵⁾

전설을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의도적인 기법의 하나로 독자와 작품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효과적이다.

전승되는 설화를 통해서 과거의 한국인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작품을 쓴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게 된다. 설화는 재래의 한국인들의 집단적으로 이루어 놓은 작품이요, 또 그것은 재래의 한국인들의 우주관, 사생관, 인생관, 생활관 및 꿈과 좌절, 이상과 현실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 것으로 한국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 작품이 민족적 특징이 짙게 드러나는 경우, 그것은 그 민족 전래의 설화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찾는 경우가 흔하다. 전래의 설화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

54) ‘누나별’ 「選集2」 pp. 91~92.

55) ‘실겉이꽃’ 「選集5」 pp. 371~372.

에 그 민족과 깊이 밀착돼 있다. 따라서 민족적 특성과 지역적 개성이 드러나 그 작품의 성격과 특징을 나타낸다.

오 영수의 소설에서 우리가 느끼는 친근감은 여기에서 온 것이다.

B. 해학·풍자·肉談

해학, 풍자, 肉談 등을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요소가 오 영수 소설에는 있다. 그리고 이런 요소는 우리를 한국인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우리가 흔히 영국문학이나 중국문학에서 볼 수 있는 웃음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인에게 오래 몸에 배어온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그의 소설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는 앞을 가로막고 한사코 짚어낸다. 여느 때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 아무래도 꼬리를 밟아 놀라게 했거나 무슨 까닭이 있음에 틀림없었다. /“니가 아무리 덤벼봤자, 나는 너저 주인하고 친구야 친구!” /이러고 학도가 두어 걸음 들어서면 개는 두어 걸음 물러나면서도 자칫하면 중의가랑 지라도 물어뜯을 기세다. [중략] /“야, 임마! 똑똑히 들어봐라. 세상이 모조리 도둑판이니 네 눈 짚에는 누구 없이 다 도둑놈으로 빌 게다. 그러나 도둑질도 임마 백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해 먹는다. 알아?” /개가 벼룩을 터느라고 짚기를 좀 멈추자 /“나는 백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러니까 도둑질도 못해 먹는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니란 말야 으 알았지 —” /그리고는 훌쩍 개를 앞질러 현 관문을 와르르 열어 짓혔다. 철은 일부러 그 누구요? 해봤다. 그러자 학도는 /“학도 양이고, 봉도 양이고, 강산 두루미라커는 기라!”⁵⁶⁾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웃게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첫째, <학도>라는 등장인물의 성격에 있다. 낙천적인 성격이면서 현재는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 인물과 개와의 생경이를 보면서 웃음이 나온다. 인물의 성격이 주는 웃음이다. 둘째, 개와 <박학도>와의 생경이를 지켜보고 있는 인물인 <장철>의 태도다. <학도>를 잘 알고 그를 이해하면서 동정하는 이 인물은 개가 짚기만 할 뿐 그 이상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우스운 장면을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는 행위에 우리는 또 미소를 짓게 된다. 셋째, 개를 향해 도둑질도 백과 돈이 있어야 해먹는다는 <학도>의 발언 속에는 현실 세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숨어 있다. 풍자적 요소가 들어 있어 비판과 동시에 쓴 웃음을 웃게 된다.

따라서 이 대목은 해학과 풍자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다른 소설의 경우를 살펴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덩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가만 있어, 그 말이 잘 모르겠는데……저 예수 모친 마리아가 누하고 어졌노?” [중략] /“약혼을 해 놓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해서……” /“잉태가 뭐여?” /“즉 아이를 배는 거……” /“아니 그럼 아직 시집도 가기 전에 애를 뱃다, 야아 고 맹랑한데 그럼

56) ‘朴學道’ 「選集1」 p. 240.

그게 누구 아인테?” / “여기는 성령의 아이를 뱀다고……” / “그 성령이란 작자가 누구야?” [중략] / “여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아달을 나홀 것시오, 그 일홈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쓰였지요!” / “임마누엘이 또 뭐야?” / “즉, 예순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주라고……” / “흠, 그러니까 예수 아버지는 성령이란 작자고, 그러니깐…… 아까 누하고 약혼했다겠노?” / “요셉” / “음, 그러니깐 요셉은 헛물만 컸구만” / “에, 그 재미없다.” / “그 판 데 좀 읽어 봐여” / “어데 연애하는 신명나는 데 없나?” / “새끼들 이 책은 성경책이야, 그런 소리하면 죄받고 천당 못가여!” [중략] “그 답은?” / 제8은 도적질 하지 말라 하시니라. / “제에길헐, 천당 가긴 다 틀렸당제!” / “우리만 못 갈라구, 대한 민국에는 잘 놔 한 놔도 없어!” / “채, 잔놈의 천당 쫘 돈만 있으면 문제없다야!” / “돈보다 백이 있어야 돼” / “이 새끼야, 천당만큼은 돈이나 백으로 못가여!” / “저 맹추새끼, 이 새끼야 돈하고 백만 내라, 벌이라도 갔다 올께” / “천당이 어딘데 알긴 해여. 이 새끼야”⁵⁷⁾

이 인용문에 나오는 인물들도 낙천적이고 무식하며 단순 소박하다. 그들이 주고 받는 대화들 들으면서 우리는 웃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다. 아울러 관심이 남녀 관계에 모아져 있다는 것, 돈과 백을 들먹거라는 것은 인간성과 세태의 단면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학과 풍자와 육담적 성격이 混在해 있는 것이다.

오 영수 소설에는 인간성의 미묘한 구석을 제시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소설이 적지 않은데, 「두 老友」(53), 「胎春期」(56), 「떡」(56), 「제비」(57), 「메아리」(59), 「失笑」(61), 「만화」(66), 「塗說」(67), 「맹꽁이」(71), 「낮도깨비」(76) 등등 초기작에서부터 후기작에 이르기까지 산재해 있다.

이 웃음을 주는 요소 가운데 서민 감정과 서민 생활과 밀착된 것이 많고 육담적 성격의 것도 있다. 「메아리」와 「도설」같은 것은 육담적 성격이 강하다.

대체로 그의 웃음은 서민적 요소가 강하고 그것은 조선조의 서민(평민)문학의 그것과 상통하며 20세기에는 김 유정의 그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한국인의 삶과 깊이 밀착된 웃음의 요소가 그의 소설에 두드러져 그의 소설이 친근감을 주는 요인이 된다.

C. 在來의 韓國人

오 영수 소설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인물들은 농촌, 어촌(해촌), 산촌에 살고 있거나, 그런 곳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이다. 무기력한 대신 선량하며 따뜻한 인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생활관이나 의식 내용은 조선조시대의 시골 사람이나, 식민지 시대의 시골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한국인들에게는 친근감을 준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이기도 하며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57) ‘明暗’ 「選集2」 pp.291~292.

특히 그들의 의식 내용을 점검하면 오랫동안 우리의 서민층을 지배해 온 샤머니즘의 세계로 채워져 있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믿고,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그들에게는 기상대나 측후소가 필요치 않았다. 그들의 체험에서 얻은 지식과 신념은 어떠한 이변(異變)에도 굽히지 않았다. 낚(出漁日)을 받아 놓고 선주는 목욕 재계하고 풍신과 용신에 제를 올렸다. 풍어(豐漁)도 빌었다. 좋은 날씨에 배 좋겠다. 갈바람이라도 무슨 거리낌이 있었으랴! /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곳, 솜구름이 양떼처럼 피어오르는 희미한 수평선을 향해 배는 벌써 까마득하다.⁵⁸⁾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정신적 세계가 드러난다. 과학보다 체험을 앞세우며 샤머니즘적 신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다. 그들은 풍신과 용신이 있다고 믿고, 그런 풍신과 용신에게 그들의 소원을 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재래의 한국의 서민층들의 세계와 상통하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낯설지 않다.

산신령님요, 우리는 산신령님께 의지하고 사는 백성입니다. 험악한 꼴도 많이 보시고 그래도 노엽 안하시고, 우리를 여계 살도록 하시고, 그 은혜 망국합니다. 내년 농사도 재 없이 해 주시고 또 이 골짜기에 살던 사람들도 와서 살도록 산신령님께 빕니다.⁵⁹⁾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풍신과 용신에게 그들의 소원을 빌고 있다면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소원을 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이 성취되리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인물들은 「井邑詞」, 「雙花店」, 「龍飛御天歌」, 「思美人曲」, 「沈清傳」, 「春香傳」 등 우리의 고전문학에 나오는 인물들과 정신적 세계가 비슷하다. 그것은 萬物에 정령이 존재한다고 보는 샤머니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현대문학의 경우에도 김 유정의 「금따는 콩밭」, 「봄·봄」, 김 동리의 「山火」, 「巫女圖」, 「바위」, 「동구 앞길」, 「화랑의 후예」, 정비석의 「성황당」, 강 경애의 「地下村」 등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과 정신 세계가 비슷하다.

따라서 오 영수의 인물들은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이고, 동시에 과거의 우리 문학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만큼 낯설지가 않다. 우리가 오 영수 소설에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D. 韓國的 人情

오 영수 소설의 중요한 세계는 人情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人情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사회가 거칠어갈수록

58) '갯마을' 「選集1」 p. 317.

59) '메아리' 「選集3」 p. 120.

인정이 있는 한 인간 사회는 메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오 영수 소설에 나오는 인정의 양상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인정, 불우한 사람, 약한 사람, 패배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인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어릴 때 일이다. /같은 또래들이 일어덥 모여 놀러 가다가 뿔 때문인지 싸웠다. 부잣집이고 힘도 센 아이에게 얻어 맞고 혼자 돌아왔다. 외롭고 슬펐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다. 그때 은이(銀伊)라는 계집아이만이 패에서 떨어져 같이 와 주었다. 정작 울음이 터졌다. 은이는 말없이 입을 실쭉거렸다. /은이가 고맙았다. 고맙고 반가워서 울음이 터진 것이다.⁶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부잣집이고 힘도 센 아이’에게 얻어맞았다는 것은 약하고 가난한 집 아이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난다. 그것은 분하고 억울하고 동시에 패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약하다, 가난하다,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심리는 섬세하고 서리움에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럴 때 패에서 떨어져 같이 와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깊이가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도리어 울음이 나왔다는 것, 그것은 인정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해순이는 아랫도리를 헝구고 들어와서 자리에 누웠으나 오랫동안 잠이 오질 않는다. 그 억센 손이 자꾸만 머리에 떠오른다. 돌아오지 않은 어쩌면 꼭 돌아올 것도 같은 성구의 손 같기도 한, 아니면 정용으로 풀려가 버린 상수의 손 같기도 한——그 억세디 억센 손——. /해순이는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애써 본다. 눈을 감아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금하는 음식일수록 맘이 당기듯 잊어 버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놓지기 싫은 마음——그것은 해순이에게 까마득 사라져 가는 기억의 불씨를 쫓겨 사르게를 지퍼 놓은 것과도 같았다. 안타깝고 피로운 밤이었다. /창이 밝아 왔다. 해순이는 방문을 열었다. 사리섬 위에 달이 솟았다. 해순이는 달빛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뇌어 본다. /—— 죽었는지 살았는지 —— /눈시울이 젖는다. 한숨과 함께 혀를 한 번 차고는 문지방을 베고 누워 버린다. 달빛에 젖어 잠이 들었다. /누가 어깨를 흔든다. 소스라치고 깨어보니 그의 시어머니다. 해순이는 벌떡 일어나 가슴을 여미면서 /“우짜고, 그 새 잠이 들었 던가베” /시어머니는 언제나 다름없는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애야 문을 닫아 걸고 자거라!” /남편없는 며느리가 애처러웠고, 아들없는 시어머니가 가엾어 친딸 친어머니 못지 않게 정으로 살아가는 고부간이다. 그러나 이날 밤만은 얼굴이 달아 올라 해순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의 시어머니는 언젠가 해순이가 돌아오기 전에도 /“애야 문을 꼭 걸고 자거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의 시어머니다. 어쩌면 해순이의 오늘을 “애야 문을 꼭 닫아 걸고 자거라……”는데 요약될는지 모른다.⁶¹⁾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불편한 관계가 되기 쉽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 나오는 고부 사이는 특별하다. 아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죽고 며느리 혼자 있다가 밤에 댄 남자에게

60) '제비' 「選集2」 p. 214.

61) '갯마을' 「選集1」 pp. 313~314.

몸을 잃는다. 며느리는 그가 누구인지 물렸으나 그것이 상수라는 것이 드러나고 상수와 살림을 차리게 된다. 그러나 상수마저 징용에 끌려가자 며느리는 다시 첫 남편의 집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산다.

소설의 문맥으로 보아 시어머니는 깊은 밤에 며느리가 아들 아닌 사람에게 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이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며느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모른체 하고 있다.(이 비슷한 일을 시어머니도 경험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모른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가해 갔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자 받아들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관용과 정이다. ‘남편없는 며느리가 가엾어’(가점=필자) 친딸 친어머니처럼 ‘정으로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이 오 영수의 견해다. 상대편을 애처롭게 느꼈다거나 가엾게 여겨졌다는 것은 인정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인정은 관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른다. 그만큼 인정은 모든 것을 용해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감자로 점심을 때웠지만 저녁엔 햇콩을 까 넣고 끓인 밀가루 나물죽을 박 노인은 달갑게 그릇 반이나 먹었다. 시원한 트림을 하면서 /“나는 사람이 싫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산으로 들어와 벌써 이십 년 가까이 사는데 그게 양입니다. 역시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안 귀천이 있겠입디더.” / 동욱은 초벌에 따 말린 엽초를 빼다 노인에게 권하면서 /“아무렴요!”⁶²⁾

사람이 싫어서 20년 가까이 깊은 산에 들어가 살고 있는 노인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사람끼리 살아야 귀천이 있겠다고 인정을 강조한 것이나 이런 노인의 말에 아무렴요 하고 동조하는 동욱의 발언 속에 오 영수의 견해도 들어 있다.

이런 인정은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사의 단면이다. 그만큼 낯설지 않다. 같은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이 더 두드러진 것 같다.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개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보다 개화의 세례를 덜 받은 사람들에게, 부유층보다 서민층에게, 강자보다 약자에게 더 두드러진 것 같다. 권력과 부와 교육을 받을 기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친근감의 농도가 짙다.

한국의 작가, 시인들의 작품 가운데 우리들 한국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을 비교적 많이 쓴 사람 가운데 김 소월, 이 태준, 김 동리, 황 순원 등이 있다. 여기에 오 영수도 끼일 수 있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우리들 한국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세계가 보인다.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첫째, 재래의 설화를 많이 활용하여 그의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설화는 오랫동안 한국인들 사이에 구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낯설지 않을 뿐 아니라 설화의 세계가 한국인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 영수의 소설을 읽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되는 작품들이 있다. 그것은 대체로 해학, 풍자, 육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요소가 재래의 한국문학 또는 설화 등에서

62) ‘메아리’ 「選集3」 p.96.

자주 보았던 것이다. 특히 재래의 서민들 사이에 유포됐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때문에 오 영수의 문학에 나타난 웃음의 요소도 우리들 한국인에게서는 친근감이 있는 것이다.

세째, 오 영수의 작중인물 대다수가 재래의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정신적 세계는 샤머니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근대화의 세계를 덜 받은 소박한 사람들이고 이런 인물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때문에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네째, 오 영수 소설에는 한국적 인정을 소중한 것으로 그린 작품이 많다. 논리나 합리, 또는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이고 인정으로 인간 관계를 용해시키는 사람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세계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 가운데 쉽게 발견되는 것이다. 인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인정을 저버리는 일을 아주 못된 일로 여기는 인정주의가 그의 소설 도처에 드러나는데 이 점도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요소다.

오 영수 문학이 지니는 친근감, 더 나아가 한국적 요소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반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치판단 이전에 그의 문학에 드러난 요소가 산업화하기 이전의 한국인들과 밀착된다는 점에서 우리들 한국인의 정체성, 우리들 한국인의 삶의 방식,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화·세계화시대의 급격한 도래가 예상되는 이 때 그의 문학에 투영된 요소는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정체를 살피는데도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Ⅶ. 結 論

이상 論議해 온 것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작품세계는 人情美談·庶民의 哀歡 등 비교적 단조로운 世界라는 종래의 通說과는 달리 ① 어린이들을 통한 인간성의 탐구와 옹호, ② 종이나 머슴 또는 식모 등 社會經濟적으로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照明, ③ 道家的 世界的 동경, ④ 분단 상황의 문학적 형상화, ⑤ 産業社會의 그늘에 대한 성찰과 비판, ⑥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의 作品化 등 多樣하며 작품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그 世界가 變化·擴大되어 왔다.

2) 作中人物은 거의 平面的人物이고 어린이, 庶民, 老人, 小市民, 작가의 분신을 망라하고 있다. 평면적 인물이 많다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탐구에 어떤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어린이, 노인, 서민 등 약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킨 것은 그의 인간관의 한 측면을 드러낸 것이며,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우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라는 그의 세계는 여기서도 드러난다.

3)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주로 시골이고 시골 가운데서도 山村이 많이 나온다. 그것은 그가 山村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노후의 落鄕生活도 山村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오 영수 스스로 山村에 대한 이해가 많았고 山村의 삶에 대한 傾倒의 한 표현이다. 그것은 脫都市的, 鄕村的 체질이 많은 이 작가의 체질과도 관련이 깊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의 경우에도 도시의 변두리가 주류이고, 도시에 거주하는 인물들을 그리면서도 낯시터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것은 작가의 체험과 깊이 관련된 것이다.

4) 視點은 1인칭 소설이 많고 話者가 거의 작가와 同一人物이어서 私小說의 요소가 짙고 심경 소설, 신변소설을 많이 쓴 작가임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

5) 간결한 文章으로 화가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言語로 장면을 묘사하는 기법이 탁월하며 그 점에서 그는 기교파이고 예술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작가다. 그것은 그의 투철한 匠人精神의 산물로, 文學은 무엇보다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

6) 그의 소설은 한국인에게 親近感을 外國人 讀者에게는 이색적이고 독특한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그의 소설이 한국적 요소가 짙기 때문이다. 작품의 소재를 우리의 說話에서 많이 찾았고, 재래의 한국인의 생활감정에 대한 이해에도 남다른 안목이 있어서 작중인물의 한국적 특성이 많이 나타나며, 서민감각에 맞는 해학, 풍자, 육담을 적절히 구사하여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한국인에게 독특한 양상으로 남아 있는 人情을 형상화하는 데 탁월하다.

오 영수는 기교파 작가이고, 예술성에 대한 의식이 강한 작가이면서 재래의 한국인의 감정과 생활을 깊이있게 관찰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하는데 뛰어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文學은 在來的인 것과 外來的인 것이 混在하는 20세기 후반에 한국인의 正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할 기회를 주었으며 더 나아가 한국 문화의 독자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것은 李泰俊, 金東里, 黃順元 등의 세계를 더 심화·확대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설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하게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소설이 소설사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및 論文

- 「머루」文化堂, 1954.
「갯마을」中央文化社, 1956.
「明暗」白水社, 1958.
「메아리」白水社, 1960.
「睡蓮」正音社, 1965.
「吳永壽全集 1~5」現代書籍, 1968.
「吳永壽代表作選集1~7」東林出版社, 1974.
「黃昏」創作과 批評社, 1977.
「잃어 버린 桃園」栗成社, 1978.
趙演鉉, 「文學과 그 遇邊」, 人間社, 1958.
李御寧, 「抵抗의 文學」, 耕智社, 1959.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螢雪出版社, 1969.
宋在英, 「現代文學의 擁護」, 文學과 知性社, 1979.
金奉郡外, 「韓國現代作家論」, 民知社, 1984.
全光鏞外, 「韓國現代小說史研究」, 民音社, 1984.
Forster, E. M.;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77).
Muir, E.; The Structure of the Novel, 安容喆譯, 서울: 正音社, 1975.
Brooks, C & Warren, R. P.;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1959).
小林秀雄, 「小林秀雄初期文藝論集」·(東京: 岩波書店, 1980).
小田切秀雄, 「現代文學史 上卷」, 東京, 集英社, 1975.
金東里, “溫情과 善意의 世界—吳永壽著 「明暗」을 中心으로” (新文藝, 1959.1)
文德守, “抒情의 溫床—吳永壽氏 「明暗」에 대하여” (現代文學, 1959.3)
千勝俊, “人間의 肯定” (現代文學, 1959.9)
金相一, “現代文學의 盲點(3)” (現代文學, 1962.12).
李炯基, “吳永壽” (文學春秋, 1964.11)
申東旭, “肯定하는 허로—「메아리」의 境遇” (現代文學, 1965.5)
千二斗, “恨의 人情의 特質” (現代文學, 1967.8)
千祥炳, “善意의 文學—吳永壽論” (現代韓國文學全集1, 新丘文化社, 1967).
廉武雄, “哀歡이 담긴 漁村風景”, (現代韓國文學全集1).
李御寧, “따뜻한 人情의 世界”(現代韓國文學全集1)
千祥炳, “愛憎없는 原始社會”, (現代韓國文學全集1).

- 金炳傑, “吳永壽의 兩義性”(現代文學, 1967.9)
- 李和珩, “人間과 肯定的 美學—吳永壽論”(語文論集 14·15, 高大, 1973).
- 洪起三, “吳永壽의 「入院記」”(現代文學, 1973.6).
- 金巢雲, “吳永壽란 小說쟁이”(黃昏, 創作과 批評社, 1976).
- 千二斗, “따뜻한 觀照의 美學”(韓國現代文學全集25, 三省出版社, 1978).
- 金永和, “韓國的 情緒의 再現—吳永壽論”(韓國現代小說의 構造, 泰光文化社, 1977).
- 金東里, “吳永壽兄에 대하여—「머루」 무렵을 중심으로”(韓國文學, 1979. 7).
- 張文平, “反文明的 人間像의 例示—吳永壽의 作品世界”(韓國文學, 1979.7).
- 辛卿得, “共同社會의 불꽃—吳永壽論”(現代文學, 1979.9).
- 趙健相, “蘭溪 吳永壽論序說—그의 作家精神을 中心으로”(大東文化研究 14집, 成大.大東文化研究院, 1981).
- 金炳傑, “韓國的인 情緒 속의 哀歡”(갯마을, 마당문고사, 1983.4)

A Study of the Novels of Yeong-soo Oh

Kim Young-hwa, Kim Byoung-taek

Yeong-soo Oh (1914-1979), one of Korea's prolific writers, dedicated some 30-add years of his life-time to the creation of literary works, producing as many as 145 or so novels. A brief overview of the realm of his literary works as well as of their characteristics is given as follows:

- 1) The literary works are marked by a remarkable variety: ① an exploration of humanity, ② an illumination on the life of people whose socio-economic level is low, ③ a longing for a Taoist world, ④ a literary illustration of the Korean-peninsula partition and, ⑤ an introspection and criticism from an off-stage perspective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 2) Far from being leaders of a generation, the personae consist of children, common people, the aged, and the petit bourgeois he sympathized with. This reveals a cross-section not only of the writer's world-view but also of his view of man.
- 3) The range of his limited experiences is embodied in the setting he chooses. He chose to reside far away from the industrial centers, retiring to rural districts, fishing spots and places outside of the city. Herein lies something of a past-oriented, indeed escapist, character.
- 4) The technique of picture-like description in short sentences is so excellent as to tell that he is of a craftsmanship-conscious character, and that he thinks much of art.
- 5) Most of the material was taken from fables handed down from the past. He based his stories on humour, satirical metaphors, and vulgar expressions. In addition, the impressive description of traditional Korean sympathy gives familiarity to us readers.
- 6) His novels favor the first person viewpoint. And both the psychological and essay-style stories take a great portion of his novels. Because of this, his novels remind us of somewhat the popular essays or of auto-biographical stories.

As a stylistic writer or one who paid much attention to the feelings of traditional life, Yeong-soo Oh was definitely aware of the Korean atmosphere, as were Tae-joon Lee, Dong-lee Kim, and Soon-won Hwang. It is likely that through his novels we can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and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of Korean culture.